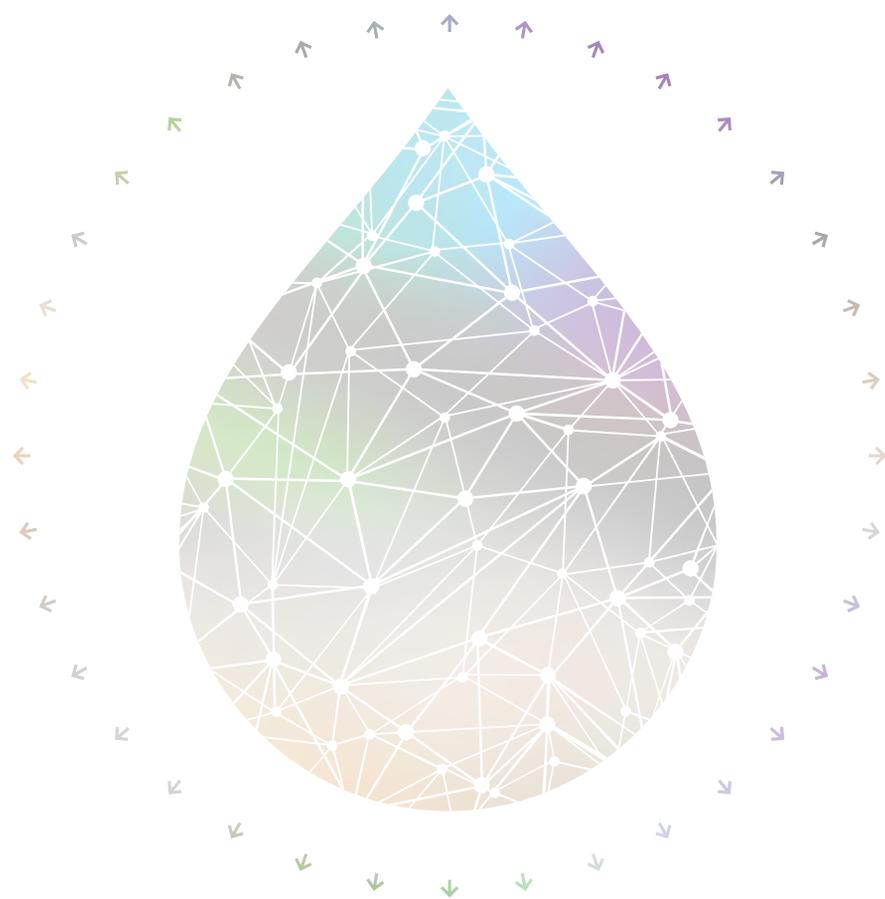


HIGHER EFFICIENCY



HIGHER EFFICIENCY

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현대오일뱅크는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고도화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39.1%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윤활기유사업과 오일터미널사업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과 최고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 임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은 최장 기간 무사고 기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 활동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도 더 높은 효율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향해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GOING HIGHER



Contents

Company Overview

04	2015 주요 성과
16	경영진 인사말
20	주요 연혁
22	회사 비전
24	이사회

Business Review

28	정유사업
30	석유화학사업
31	윤활기유사업
32	오일터미널사업
33	신사업
34	주요 제품
36	주요 생산시설

Management Review

46	경영이념
47	경영전략
48	윤리경영
4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50	리스크 관리
52	품질 정책
54	마케팅 정책
56	환경경영
58	사회공헌

Financial Review

62	경영성과 분석의견과 전망
7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73	연결재무제표
8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Appendix

136	글로벌 네트워크
138	전사 조직도
139	IR 연락처

COMPANY OVERVIEW



- 04 2015 주요 성과
- 16 경영진 인사말
- 20 주요 연혁
- 22 회사 비전
- 24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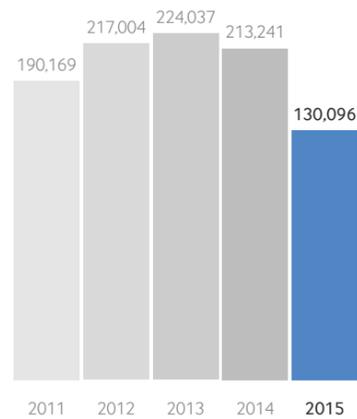
2015 주요 성과

2015년 현대오일뱅크는 유가 급락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14분기 연속 흑자 달성이라는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설비, 적극적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그리고 다양한 원가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액

130,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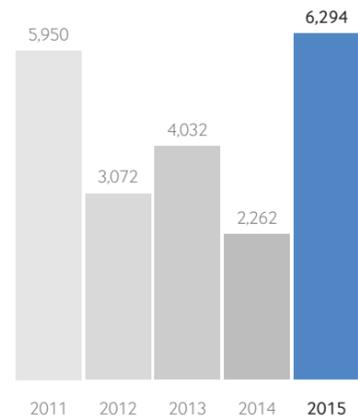
단위: 억 원



영업이익

6,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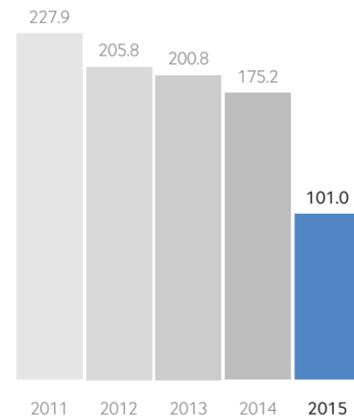
단위: 억 원



부채비율

101.0%

단위: %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억 원

	2013	2014	2015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224,037	213,241	130,096
영업이익	4,032	2,262	6,294
당기순이익	1,584	42	4,512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89,001	81,850	75,601
부채총계	59,414	52,105	37,983
자본총계	29,587	29,745	37,618
안정성지표			
유동비율	102.2%	95.0%	119.1%
부채비율	200.8%	175.2%	101.0%
차입금의존도	34.9%	42.4%	28.4%
이자보상배율	3.3	2.0	7.8
회사채 등급			
한국기업평가	AA-	AA-	AA-
한국신용평가	AA-	AA-	AA-
NICE신용평가	AA-	AA-	AA-
기업어음 등급			
한국기업평가	A1	A1	A1
한국신용평가	A1	A1	A1
NICE신용평가	A1	A1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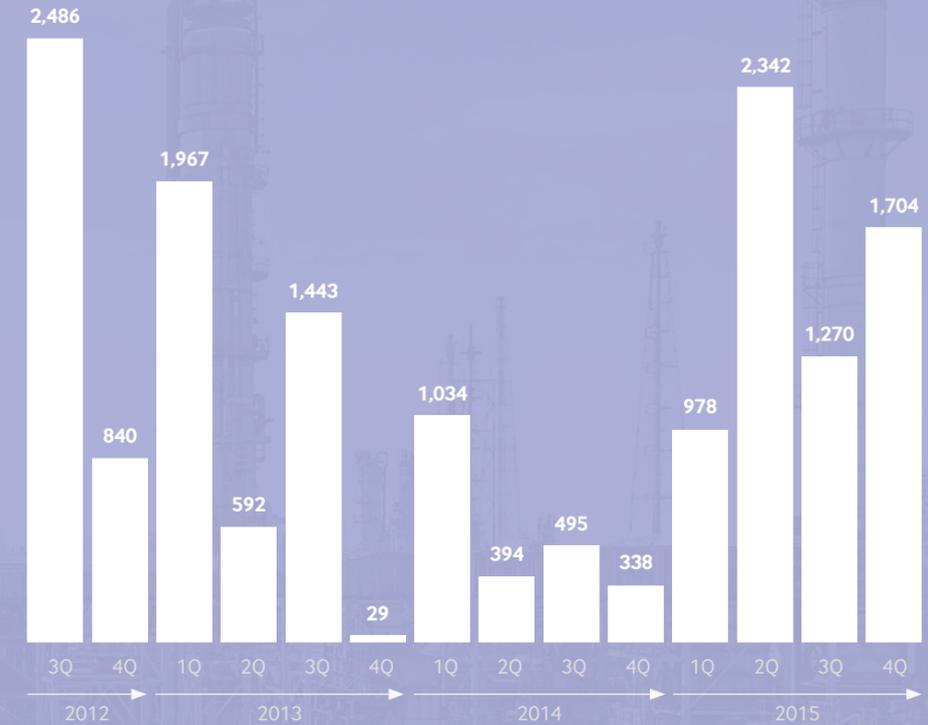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연결재무제표 기준

— Profitability

14분기 연속 흑자 달성

2012. 3Q - 2015. 4Q

단위: 억 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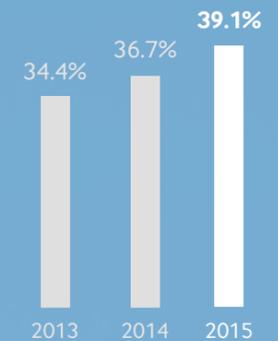
2015년 현대오일뱅크는 업계 최고의 고도화율을 바탕으로 탁월한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3분기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을 2015년 말까지 14분기 연속 이어감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매출은 유가 급락으로 인해 13조 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3,145억 원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6,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Competitiveness



업계 최고의 고도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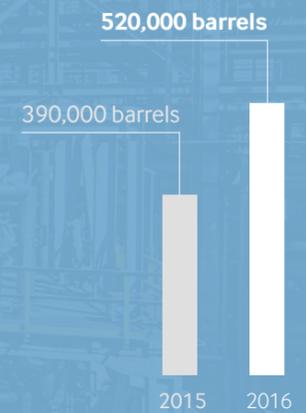
39.1%



일일 원유 정제능력

390,000 barrels

2016년 52만 배럴 예정



현대오일뱅크는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석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현대오일뱅크는 하루 39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으며, 고도화율은 2014년 36.5%에서 더욱 향상된 39.1%로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6년 혼합자일렌(MX)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현대오일뱅크는 하루 52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Diversification



단위: 억 원

현대셀베이스오일

매출
5,688
영업이익
445

현대오일터미널

매출
280
영업이익
76

현대코스모

매출
21,557
영업이익
-132

현대케미칼

2017년 사업계획(2016년 10월 상입가동 예정)

매출
35,467
영업이익
1,615

현대오일뱅크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으며, 신사업들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과 가치 창출에 주력해왔습니다. 현대셀베이스오일은 2015년 윤활기유 시장 진입 이후 5,688억 원의 매출과 445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8%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2014년 사업 첫째 226억 원의 매출과 5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도 매출 280억 원과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하여 2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현대코스모는 2015년 2조 1,55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현대케미칼은 상입가동 이후 2017년 매출 3조 5,467억 원과 영업이익 1,61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mmitment



2015
한국경영자총협회
투명경영대상 수상

대상

2015
전기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

2015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대통령 표창

대산공장 무재해 500만 인시 달성

5,000,000^{work hours}

2013년 10월 ~ 2015년 11월(740일)



현대오일뱅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본사인 대산공장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740일 동안 총 500만 인시(人時) 무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경영, 노사상생, 1%나눔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아 한국경영자총협회 투명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2015년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과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Sustainability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급여 1%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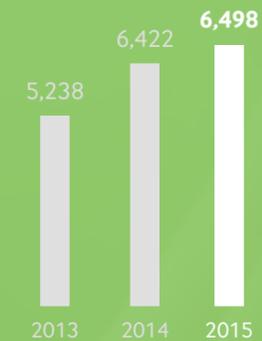
2011년 9월부터
매월 임직원 급여 1%나눔

임직원 연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6,498 hours

사회공헌 기부

50억 원



환경경영 투자

131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1%나눔재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및 자회사 임직원들은 2011년 9월부터 1%나눔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서나 동호회 단위로 매년 총 5,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50억 원을 기부하고 환경보전사업에 131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영진 인사말

MESSAGE FROM CEO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고도화설비의 안정적 가동, 유종 다변화, 탄력적인 재고 관리 등을 통해 정유부문에서 5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저유가와 흐름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 우위 지속’, ‘안전 최우선의 공장 운영’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14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주주와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직원을 대표하여 경영 성과와 올 한 해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고도화설비의 안정적 가동, 유종 다변화, 탄력적인 재고 관리 등을 통해 정유부문에서 5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은 신규 공장 건설과 정비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사 최초로 무재해 500만 인시를 달성하였고, 주유소 원적지 및 LPG 가격 담합 소송 등에서 승소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회복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셀베이스오일, 현대오일터미널 등 자회사들도 제품 공급 과잉과 주요 소비국의 경기 부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환경도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유가와 흐름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 우위 지속’, ‘안전 최우선의 공장 운영’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14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원가 경쟁력은 무엇보다 경제성 있는 원유를 도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검토 유종을 더욱 넓혀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고마진 제품 시장 개척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제안제도, 엔지니어 아이디어 발굴회의 등 공장의 효율과 수익 개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은 현대오일뱅크의 핵심 요소입니다. 2013년부터 대산공장의 명칭을 ‘안전생산본부’로 바꾼 것도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롯데그룹과 합작한 혼합자일렌 제조공장이 하반기 상업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회사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기존 공장의 안정 가동은 물론 MX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안전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기업 최초로 시작해 어느덧 출범 4년을 넘어선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국가 경제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와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문중박

현대오일뱅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 최우선의 공장 운영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강달호 부사장 안전생산본부장

2016년 안전생산본부는 안전문화 정착, 설비 신뢰도 향상, 수익 개선활동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은 공장 운영의 기본이자 핵심가치입니다. 비상대응 능력 생활화와 안전관리 강화로 무사고 공장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핵심 공정설비의 신뢰도 점검과 안전진단 TFT활동을 통하여 설비 신뢰도를 향상함으로써 핵심 공정의 비상가동 정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엔지니어와 운전원이 동참하는 아이디어 발굴 활동으로 신 제안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전체 공정의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MX프로젝트와 #10코크스 순환 유동층 보일러 등 진행 중인 신규 프로젝트가 2016년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완공 및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6년 한 해가 공장은 물론이며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 발판이 마련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박병덕 부사장 영업본부장

2016년 영업본부는 주유소 친절/청결 서비스를 정착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때 서비스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다고 자평했던 우리나라 주유소 시장은, 고유가 시기에 촉발된 가격경쟁이 이어지며 수익성과 서비스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영업본부는 친절/청결 마인드셋 교육, 서비스 시범 드림팀 순회, 우수사례 전파, 주유원복 디자인 개선, MD 보강 등 타 정유사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주유소는 외식업 등 다양한 시설을 접목한 복합주유소로 개발해, 영업이익 증대와 자산가치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복합개발 1호점인 화정주유소가 대성공을 거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의 연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내수판매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사업본부와의 밀접한 소통으로 내수/수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해 전사 이익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지학 부사장 글로벌사업본부장

2016년은 유가 변동 위험이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탄력적 월물 및 재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익 우선 수급 조정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외 법인과 지사를 활용한 판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호주/뉴질랜드항 저유황 휘발유, 베트남항 고유황 휘발유 및 초저유황 경유 수출을 시행하고 수출 카고 대형화로 경제성을 증대할 것입니다. 더불어 판매 경제성이 높은 미주 지역 휘발유 수출과 싱가포르 벙커링 사업 진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수/수출 간 경제성 우위의 수급 조정을 실행하고 신규 가동되는 공장과의 통합 관리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수급 대응력을 강화하여 최적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환규 전무 경영지원본부장

2016년은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영지원본부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역할에 집중하여 각 사업본부 간 역할을 조율하고, 본부별로 수익 창출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외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무적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불필요한 재고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회사 지원을 강화하여 신규 사업이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할 것이며, 사내 학습조직과 소모임 등 소통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회사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전문가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연혁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에 최초의 민자 정유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로 편입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900's

- | | |
|---|---|
| 1964. 11. 최초 민자 정유회사(극동석유공업㈜)
(現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설립 | 1989. 11. 원유처리 일산 10만 배럴 증설허가 취득 |
| 1969. 01.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를 「극동셀석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93. 07. 「극동정유주식회사」를 「현대정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 1977. 05. 「극동셀석유주식회사」를 「극동석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94. 06. OILBANK 브랜드 개발 도입 |
| 1978. 08. 원유처리 일산 1만 배럴 시설 준공 | 1996. 05. 대산공장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 준공 |
| 1988. 08. 일산 6만 배럴 상압증류시설 가동 개시 | 1998. 05. 연산 40만 톤 BTX 시설 준공 |
| 1988. 11. 「극동석유주식회사」를 「극동정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99. 12. 한화에너지 인수 및 한화에너지프라자㈜ 합병 |
| 1989. 07. 대산공장 준공(대통령 표창 수상) | |

2000's

- | | |
|---|--|
| 2002. 04. 「현대정유 주식회사」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2008. 11. 대산공장 '제2 고도화 프로젝트 플랜트건설 용역 계약' 체결 |
| 2004. 11.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노동부) | 2008. 12.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15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 2005. 11. 청정연료사업(Clean Fuel Project) 준공 | 2009. 03. 2009년도 제7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
| 2006. 03. 산업자원부 선정 민간기업 제조업부문 최우수 윤리경영기업 | 2009. 06. 현대오일뱅크-日 코스모석유 연 91만 톤 규모 BTX 공장 건설 합의 |
| 2007.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등급 평가 | 2009. 07. 2009년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KSQI 정유사 콜센터 부문 1위 |
| 2007. 03. 5만 2,000배럴 규모 제주저유소 가동 | 2009. 12. 무역협회 주최 무역의 날 50억불 수출탑 수상 |
| 2008. 04. 현대오일뱅크-日코스모 석유 정유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 |

2010

- 2010. 06. 2010년도 환경매거진 주최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
- 2010. 07. 2010년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KSQI 정유사 콜센터 부문 1위
- 2010. 08.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편입
- 2010. 08. 권오갑 사장 취임

2011

- 2011. 01. 제2 고도화 설비 준공
- 2011. 03. 지역 저명인사 고객 자문단 출범
- 2011. 09. 대기업 최초 1%나눔 협약 체결
- 2011. 11. 판교 중앙기술연구원 설립

2012

- 2012. 02.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설립
- 2012. 02. 현대오일터미널 설립
- 2012. 04. 현대셀베이스오일 설립
- 2012. 04. 협력업체 전용 한마음관 준공
- 2012. 07. 권오갑 사장 한국경제신문 다산경영상 수상
- 2012. 09.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 준공
- 2012. 10. 제1회 대한민국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2. 11. KS-CQI 초산업 1위, KS-SQI 정유부문 1위
- 2012. 11. 제2 BTX 준공
- 2012. 12. 권오갑 사장 무역의 날 은탑 산업훈장 수상
- 2012. 12. 무역협회 주최 무역의 날 80억불 수출탑 수상

2014

- 2014. 01. 직영주유소 이익 1%나눔 기부 참여
- 2014. 01. 현대케미칼 설립
- 2014. 05.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인증
- 2014. 07. 현대오일뱅크 창립 50주년
- 2014. 09. 현대셀베이스오일 윤활기유 공장 준공
- 2014. 09. 대구물류센터 준공
- 2014. 09. 문종박 사장 취임
- 2014. 10. 소방방재청 대한민국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4. 10. 최첨단 열공급 설비 준공
- 2014. 11. 한국표준협회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3년 연속 1위
- 2014. 1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축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 2014. 11. 고용노동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4. 11.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3

- 2013. 02. 에이온휴잇 주최 '한국 최고의 직장' 10대 기업 선정
- 2013. 02. 1%나눔재단 굿네이버스와 해외학교지원사업 협약
- 2013. 07. 롯데케미칼과 혼합자일렌(MX) 제조 합작 MOU 체결
- 2013. 08. 윤활유사업 진출, 자동차용 엔진오일 '엑스티어(XTeer)' 출시
- 2013. 11. KS-CQI 정유부문 1위
- 2013. 12. 울산신항 유류저장시설 준공

2015

- 2015. 02. 제11회 투명경영대상 대상 수상
- 2015. 03.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서산 1%나눔하우스 사업 개시
- 2015. 06. 2015 녹색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5. 06. 무재해 400만 인시 달성
- 2015. 06. 국립서울현충원 자매결연
- 2015. 11. 무재해 500만 인시 달성
- 2015. 11. 2015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수상

회사 비전

VISION 2020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기업

최고의 생산성을 갖춘 에너지 기업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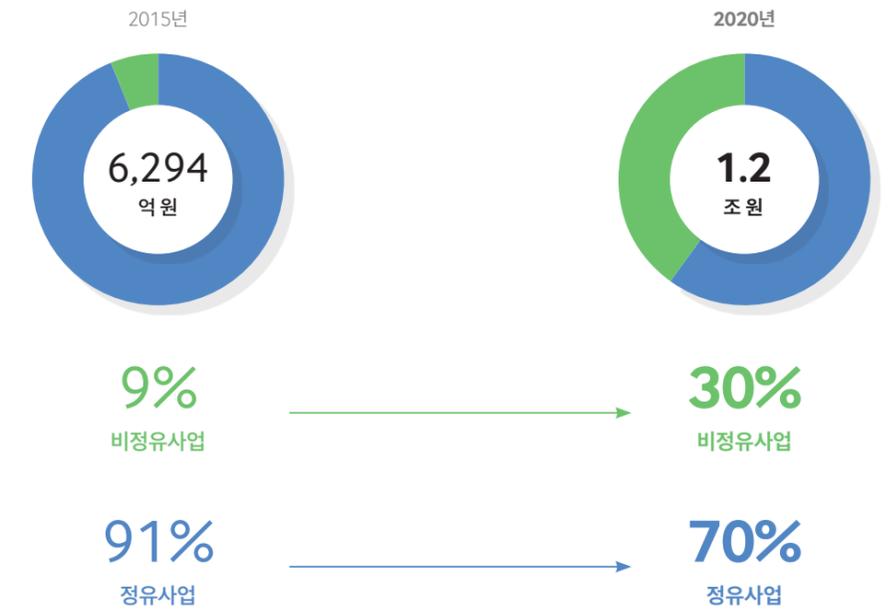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 받는 기업

매출액 21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 달성

현대오일뱅크는 2014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비전 2020'을 선포하였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지난 50년 동안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원유정제 중심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글로벌 종합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현대오일뱅크의 강한 의지와 야심찬 포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존의 윤활기유사업과 유류저장사업, MX사업 외에 카본블랙사업, 프로필렌 유도체 사업, 해외 에너지사업 투자 등 새로운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영업이익 비중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0년 매출 21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 달성

현대오일뱅크는 원유 도입 다변화, 원가 절감 그리고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정유사업 수익성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기존사업의 역량 강화 및 해외사업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 매출 21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을 달성하고 종합에너지 회사로의 기반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비정유사업의 비중을 영업이익의 30% 이상으로 향상 시킴으로써, 수익성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이사회

현대오일뱅크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지향하기 위해 그 중심에 있는 이사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의 활동을 통해 주주, 임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할

이사의 존재 의의는 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조언·감시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위해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주주와 투자자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대오일뱅크 이사회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재무사항, 투자 결정, 기타 경영사항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 구성	사내이사	사외이사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사장(2014~현재)	문종박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2014~현재) 현대중공업스포츠 대표이사 사장(2009~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2013년~현재)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2014~현재) 현대중공업스포츠 대표이사 사장(2009~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2013년~현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2009~2011)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 원장(2004~2007) 아시아개발은행 이사(1999)
	김중회 현대카드 고문(2010~2014) KB금융지주 사장, KB자산운용 부회장(2008~2010) 금융감독원 부원장(2003~2007)	김중회 현대카드 고문(2010~2014) KB금융지주 사장, KB자산운용 부회장(2008~2010) 금융감독원 부원장(2003~2007)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2005~현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1996~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책임연구원(1993~1996)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2005~현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1996~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책임연구원(1993~1996)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과 역할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중회 윤증현 정창무	김중회 윤증현 정창무	문종박 김중회 윤증현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와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 위임 사항 처리 - 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권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과 이사회 보고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

2015년 이사회 활동

현대오일뱅크 이사회는 2015년 총 7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2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	주총, 이사회, 지배구조 관련	투자 관련	회계와 재무관리 관련	기타 주요 경영사항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목적사항 승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2차례)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 현대케미칼 증자 참여 승인(3차례) - 현대OC(카본) 설립 승인 - 현대중공업(주)과 발전설비 운전시스템 용역계약 승인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 - 제51기 영업보고서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4차례) -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포괄 한도 승인(4차례) - 제115회 회사채 발행 승인 -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	- 현대중공업스포츠(주)와 스폰서 계약 승인 - (세한국프로축구연맹과 스폰서 계약 승인) - 2016년 경영목표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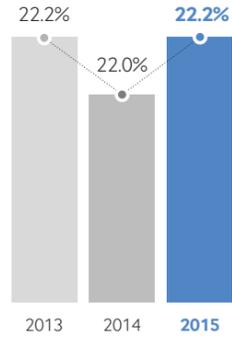
BUSINESS REVIEW

28	정유사업
30	석유화학사업
31	운할기유사업
32	오일터미널사업
33	신사업
34	주요 제품
36	주요 생산시설

정유사업

현대오일뱅크는 하루 39만 배럴의 석유 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300개의 주유소 운영을 통해 2015년 경질유 내수시장에서 22.2%의 점유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고도화된 기술 경쟁력과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며 더욱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



2015년 국가별 원유 도입량

단위: 천 배럴

국가	원유 도입량	비중
쿠웨이트	44,676	36.0%
이라크	17,553	14.1%
이란	15,491	12.5%
멕시코	9,932	8.0%
사우디아라비아	7,763	6.3%
카타르	7,196	5.8%
아랍에미리트	6,952	5.6%
영국	4,016	3.2%
러시아	3,461	2.8%
콜롬비아	1,926	1.6%
기타	5,219	4.2%
합계	124,185	100%

원유 공급선 다변화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쿠웨이트, 이라크 등의 중동산 원유를 장기계약과 현물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에 편중된 원유 수입을 기타 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멕시코, 콜롬비아 등 남미산 원유와 유럽 북해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 등을 도입했습니다.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 22%대 안정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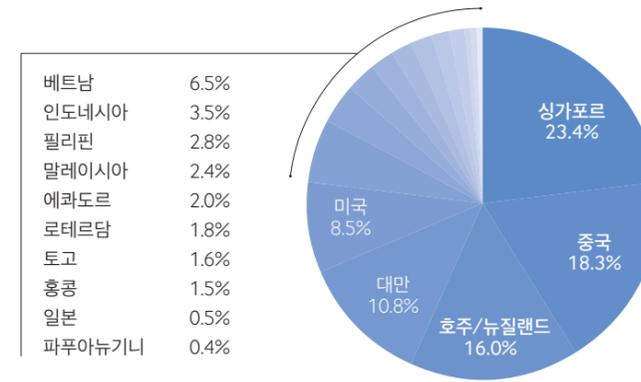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국제유가 급락, 대내외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친절·청결 서비스 강화, 알뜰 주유소 4회 연속 낙찰, 우량 신규 거래처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22%대의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운영인 대상 마케팅뿐만 아니라, 보너스/제휴카드 확대, 모바일 기반 고객 유치, 지역 제휴마케팅 강화 등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지속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표준협회 주관 서비스 품질지수(KS-SQ) 1위, 콜센터 품질지수(KS-CQ)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서비스 우수 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수출시장 확대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015년 현대오일뱅크는 3,987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주요 수출시장은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에서 호주/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2개 법인(싱가포르, 상해)과 3개 지사(중동, 베트남, 런던)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원유, 석유 제품 3자 거래를 추진하였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주 등을 대상으로 역외 거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영업망을 활용한 다양한 트레이딩으로 수익성 높은 신규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입니다.

2015년 국가별 수출물량 비중



2015년 제품별 판매량

단위: 천 배럴

경유	52,692
납사	31,644
휘발유	29,588
중유	21,141
항공유	13,006
등유	4,201
LPG	3,915
기타	7,134
합계	163,321



하루 39만 배럴의 원유 정제능력을 갖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석유화학사업

현대오일뱅크는 코스모와 합작을 통해 현대코스모를 설립하여 정유부문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고,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2013년 제2 BTX 공장 완공으로 연간 총 137만 톤의 방향족 제품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석유화학사업 경쟁력 강화

현대오일뱅크는 일본 코스모석유와 합작을 통해 현대코스모를 설립했습니다. 현대코스모는 BTX(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BTX는 합성섬유나 각종 플라스틱, 휘발유 첨가제 등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코스모는 2013년 4월 제2 BTX 공장을 성공적으로 상업가동함으로써, 연간 총 137만 톤의 방향족(BTX) 생산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BTX 생산능력(톤/년)
1,370,000



제2 BTX 공장(#2 BTX Plant)

윤활기유사업

현대오일뱅크는 쉘과의 합작을 통해 현대셀베이스오일을 설립했으며, 2014년부터 친환경 윤활기유를 생산하여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활기유사업은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수익성 확대를 통해 모범적인 사업 다각화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환경 윤활기유 생산

현대오일뱅크는 쉘과 합작을 통해 현대셀베이스오일을 설립했습니다. 현대셀베이스오일은 대산공장 내에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하여, 2014년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윤활기유는 현대오일뱅크의 고도화 공정에서 나오는 잔사유를 원료로 생산되며, 윤활유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윤활기유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하면 자동차용, 선박용, 산업용 윤활유 완제품이 됩니다. 현대셀베이스오일은 Group II 70 Neutral, Group II 150 Neutral, Group II 500 Neutral 등의 친환경 윤활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수익 창출

현대셀베이스오일은 2015년 윤활기유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이후 마케팅 역량 강화와 수출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현대셀베이스오일은 생산 제품 상당량을 쉘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윤활기유 생산능력(톤/년)
700,000



윤활기유공정(Lube Base Oil Unit)

오일터미널사업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인 현대오일터미널의 설립을 통해 국내 정유사 최초로 상업용 탱크터미널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현대오일뱅크 소유의 저유소 위탁 운영과 석유/석유화학 제품 저장사업을 통해 물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사업 본격화

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인 현대오일터미널은 울산신항에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8만 6,821㎡에 이르는 바다를 매립하였으며, 최대 5만 톤급(DWT 기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총 28만 키의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을 2013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2014년 1월부터 기존 현대오일뱅크가 소유·운영하던 각 지역 저유소를 위탁 운영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터미널 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향후 국내외 석유 제품 저장사업을 지속하여 운영하고, 나아가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유관 사업을 병행하여 동남권 최대의 석유·석유화학 제품 저장 및 물류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유류저장 능력(kl)

280,000



현대오일터미널 전경(Hyundai Oil Terminal)

신사업

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과의 협력을 통해 현대케미칼을 설립하였으며, 콘덴세이트 정제와 혼합자일렌 제조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공장 완공 및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2월 OCI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오씨아이카본을 설립하고,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카본블랙사업에 진출하여 2018년 공장을 완공 후 상업가동할 계획입니다.

콘덴세이트 정제와 혼합자일렌 제조사업

현대오일뱅크는 2014년 5월 콘덴세이트 정제와 혼합자일렌 제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석유화학업체인 롯데케미칼과 함께 합작법인 현대케미칼을 설립하고 2014년 12월 대산공장 내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가면, 하루 13만 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처리하여 연간 100만 톤의 혼합자일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BTX 공정의 주 원료인 혼합자일렌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은 본 사업을 통하여 원료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존 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BTX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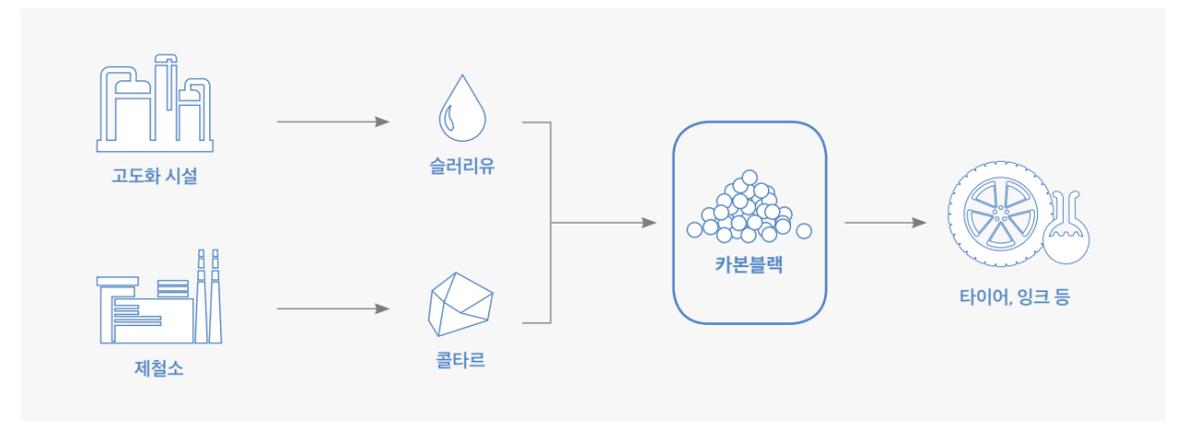
현대케미칼 공장이 완공되면 혼합자일렌을 비롯한 각종 제품과 부산물은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현대코스모에 전량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며, 혼합자일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유와 경유 등의 제품 판매를 통해 연간 1조 5,000억 원 가량의 수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카본블랙사업 진출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2월 OCI와 합작으로 현대오씨아이카본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카본블랙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카본블랙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콜타르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슬러리오일 등을 불완전연소시켜 만든 탄소분말로, 주로 타이어와 고무의 강도를 높이는 배합제나 프린터 잉크의 원료 등으로 쓰입니다.

대산공장 내에 들어서는 카본블랙 공장은 연간 15만 톤의 카본블랙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2018년 상업가동할 계획이며, 합작사 카본블랙 제품 판매를 통해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본블랙사업 시스템



주요 제품

현대오일뱅크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연료에서 산업용, 취사용까지 세계 최고 품질의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원재료 생산을 통해 현대 산업과 문명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급휘발유 Premium Gasoline

현대오일뱅크의 최고급 제품을 대표하는 옥탄가 98 이상의 고옥탄 휘발유입니다. 최신 엔진 성능 향상제를 첨가하여 장시간 가혹한 운전에도 출력과 연비 저하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며, 유해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여주는 친환경 고성능 제품입니다.

휘발유 Gasoline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한 혼합액체물질로 스파크 점화식 내연기관의 연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벤젠(0.7 부피% 이하)과 황분(10mg/kg 이하) 함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규정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품질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 청정제를 첨가하여 엔진 내에서 연료의 분사성과 연소성을 향상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저황경유 Ultra Low Sulfur Diesel

기존 경유의 매연과 소음문제를 크게 개선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초저황경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급 경유 첨가제가 포함되어 엔진을 깨끗하게 해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경유 제품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등유 Kerosene

현대오일뱅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실내등유는 친환경마크를 취득하였으며, 자극적인 냄새, 연소 시 연기 및 그을음이 거의 없어 실내용 난방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중유 Fuel Oil

중유는 주로 내연기관 및 보일러용 연료로 사용되며, 현대오일뱅크는 황 함량, 용도 및 점도에 따라 저유황 중유, 선박용 중유, A중유, B중유, C중유로 구분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LPG Liquefied Petroleum Gas

프로판(Propane)은 가정·산업용 취사, 난방 등에 사용되며 부탄(Butane)은 자동차 연료를 비롯한 이동용 버너나 난방용 연료, 산업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냄새가 없는 에어로졸용 무황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LPG 자동차의 고장 원인이 되는 기화기 찌꺼기를 최소화하는 엔진시험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유 Jet Fuel

항공기용 제트 터빈 연료유는 저압·저온의 고공에서도 연료 필터의 막힘이 없고, 엔진 연소성이나 시동성이 양호해야 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군용인 JP-8과 민간용인 Jet A-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납사 Naphtha

석유화학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납사는 휘발유의 생산원료이자 용제, 석유화학, 비료공업의 원료입니다. 끓는점이 100°C 이상인 중질납사는 개질공정(Reformer)을 통해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생산에 사용하며, 각각 나일론과 합성고무, 페인트용제, 플라스틱이나 폴리에스터섬유의 원재료가 됩니다.

Benzene, Toluene, P-Xylene

벤젠, 톨루엔, 자일렌은 무색의 액체로, 인화성이 높고 특유의 향이 있는 방향족 기초 제품입니다. 벤젠은 나일론, 스티로폼, 보온재 등의 원료로, 톨루엔은 시너 등의 합성원료로, 파라자일렌(P-Xylene)은 폴리에스터, 필름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프로필렌 Propylene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아크릴로니트릴, 나일론6, 폴리프로필렌, 산화프로필렌, 에피클로로히드린, 폴리이소프렌 등 광범위한 석유화학의 핵심원료로 아크릴 제품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세제 등의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의 근간이 됩니다.



알킬레이트 Alkylate

옥탄가가 높고 대기 공해 발생물질인 방향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증기압과 황 함량이 낮은 친환경 고품질의 휘발유배합기제로 사용됩니다.

아스팔트 Asphalt

아스팔트는 감압증류공정에서 생산되며, 도로포장의 주재료로 사용됩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아스팔트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규격 KS M2201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아스팔트 규격인 JIS K2207 인증을 획득한 품질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윤활기유 Lube Base Oil

윤활기유는 수첨분해공정에서 생산된 미전환유(Unconverted Oil)를 원료로 촉매공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윤활유 완제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원료로, 첨가제를 넣어 자동차·선박·산업용 윤활유 완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윤활유 Lubricants

윤활유 브랜드 엑스티어(XTeer)와 연료첨가제 엑스티어 알파(XTeer α)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콘덴세이트 Condensate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API 40~50도 이상 초경질 원유를 말하며, 주성분은 납사이고, 소량의 중간 유분(등유 유분, 경유 유분)과 잔사 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혼합자일렌 Mixed Xylene

올소자일렌, 메타자일렌, 파라자일렌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무색 투명한 방향성 냄새를 가진 휘발성 액체이며, BTX 공정의 주요 제품으로 도로와 농약 제조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카본블랙 Carbon Black

석탄에서 나오는 콜타르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리 오일 등을 불완전연소시켜 만든 탄소분말로, 타이어와 고무의 강도를 높이는 배합제나 프린터 잉크의 원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생산시설

현대오일뱅크는 고도화설비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서 BTX, 윤활기유, 혼합자일렌(MX), 카본블랙 생산까지 석유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업계 최고의 첨단 정제시설을 통해 최상급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원재료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 효율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은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비 고도화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대산공장은 현대오일뱅크의 원유정제를 책임지는 핵심기지로서 회사의 가치가 1차적으로 실현되는 곳입니다. 330여 만㎡ 부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설과 개조를 통해 하루 39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유전으로도 불리는 중질유 분해시설 등을 바탕으로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말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율(39.1%)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2 BTX 상업가동, 2014년 윤활기유 시설 상업가동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기지로 도약하였습니다.



제1 공장 전경(CDU: Crude Distillation Unit, VDU: Vacuum Distillation Unit)

주요 생산시설

현대오일뱅크 본사인 대산공장은 제1 공장, 제2 공장, 제1 BTX 공장, 제2 BTX 공장, 윤활기유 생산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시설 능력

단위: 천 배럴/일

공정과 시설	제1 공장	제2 공장	#1 BTX	#2 BTX	MX 및 카본블랙	합계
상압증류공정(CDU)	110	280				390
감압증류공정(VDU)	78	-				78
LPG 분리시설(LER)	12	6				18
납사/Mogas* 처리시설						
- 납사탈황공정(NHT)	12	20				32
- 납사개질공정(PLT)	4	20				24
- Mogas탈황공정(MHT)	-	34				34
- 알킬레이트 생산공정(ALK)	-	18				18
- Mogas메룩스공정(MMX)	-	10				10
등/경유 처리시설						
- 등유탈황공정(KHT/KGHT)	-	60				60
- 경유탈황공정(GHT)	22	102				124
- 등유메룩스공정(KMX)	22	-				22
중질유 탈황/분해시설						
- 수첨분해공정(HCR)	42	-				42
- 열분해공정(DCU)	36.5	-				36.5
- 중질유탈황공정(ARDS)	-	85				85
- 유동층접촉분해공정(RFCC)	-	74				74
LBO 생산시설						
- 윤활기유생산공정(LBO)	20	-				20
BTX 공정(KMTA)**						
- 벤젠 생산	-	-	120	120		240
- 파라자일렌 생산	-	-	330	800		1,130
콘덴세이트 정제공정(2016년)					130	130
혼합자일렌 제조공정(2016년)(KMTA)					1,200	1,200
카본블랙 생산(톤/년)						
- 카본블랙생산공정(2017년)					150,000	150,000

* Mogas: Motor gasoline의 약자로 휘발유 배합기재의 일종
** KMTA: Kilo Metric Ton Annual

(1) 상압증류공정

CDU (Crude Distillation Unit)
원유를 끓는점의 차이에 따라 각종 석유 제품으로 분리하는 공정으로 끓는점이 낮은 LPG, 납사,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순서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2) 감압증류공정

VDU (Vacuum Distillation Unit)
상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이루어지는 증류공정으로 끓는점이 낮은 감압경질경유, 감압중질경유, 감압중유를 감압증류탑 상부로부터 단계적으로 생산합니다.

(3) 수첨분해공정

HCR (Hydro Cracking Unit)
감압증류탑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낮은 중질유를 분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양질의 경질유(등유, 경유, LPG, 납사)를 생산합니다.

(4) 열분해공정

DCU (Delayed Coking Unit)
상압중유, 감압중유를 490°C의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경질유분과 부산물인 코크스를 생산합니다. 코크스는 연료로 사용하거나 제품으로 출하합니다.

(5) 납사탈황공정

NHT (Naphtha Hydro Treating)
고온과 고압에서 촉매를 이용해 수소를 첨가하여 납사, LPG 등에 포함된 질소와 산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6) 등유탈황공정

KHT (Kerosene Hydro Treating)
상압증류공정과 열분해공정에서 생산된 등유의 유황성분을 제거하여, 저황등유로 전환해 품질을 개선합니다.

(7) 경유탈황공정

GHT (Gasoil Hydro Treating)
상압증류공정과 열분해공정에서 생산된 경유의 유황성분을 제거하여, 저황경유로 전환해 품질을 개선합니다.

(8) 납사개질공정

PLT (Platforming)
상압과 분해공정에서 생산한 저옥탄가의 납사를 고옥탄가의 방향족 성분이 풍부한 개질납사로 전환하는 공정입니다. 생산한 개질납사는 휘발유 배합원료나 BTX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9) 상압잔사유탈황공정

ARDS
(Atmospheric Residue De-Sulfurization)
고유황 상압잔사유를 원료로 고온·고압에서 수소를 첨가하여 탈황반응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RFCC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저유황 잔사유와 함께 일부 경질유를 생산합니다.

(10) 유동층접촉분해공정

RFCC (Residue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중질유탈황공정(ARDS)에서 생산된 저유황 병커유를 유동성 촉매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공정으로서, 프로필렌, 알킬레이트 및 Mogas(휘발유 배합원료) 등을 생산합니다.

(11) BTX공정

BTX (Benzene, Toluene, P-Xylene)
제1 BTX는 개질납사를, 제2 BTX는 혼합자일렌(Mixed Xylene)을 원료로 사용하여 파라자일렌, 벤젠 및 톨루엔 등을 생산합니다.

(12) 윤활기유공정

LBO (Lube Base Oil Unit)
수첨분해공정에서 등유, 경유로 전환되지 않은 미전환유(Unconverted Oil 또는 Hydrowax)를 원료로 촉매를 이용하여 이성화반응과 수첨반응을 시키는 공정으로서, 고품질의 윤활기유(Lube Base Oil)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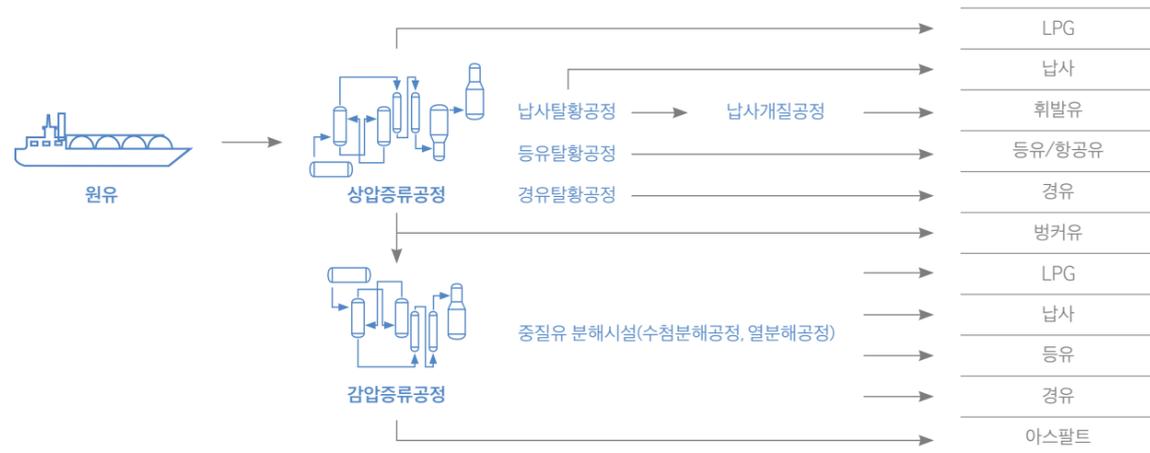
(13) 콘덴세이트공정

Condensate
콘덴세이트 증류를 통해 각종 석유 제품으로 분리하는 공정으로서 끓는점이 낮은 LPG, 납사, 등유, 경유, 잔사 유분의 순서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특히, 생산량이 많은 납사는 혼합자일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됩니다.

(14) 혼합자일렌공정

MX (Mixed Xylene)
콘덴세이트공정에서 생산된 납사와 중질 방향족을 원료로 혼합자일렌과 벤젠을 생산합니다.

공정흐름도



ARDS공정(Atmospheric Residue De-Sulfurization)



RFCC공정(Residue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최고의 고도화율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정유산업에서 고도화 시설은 원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황 중질유분을 고부가가치의 환경친화적인 휘발유, 경유, 프로필렌, 알킬레이트의 경질유분으로 전환시키는 최첨단 시설로서, '땅 위에서 기름을 생산한다'는 의미의 '지상유전'이라고도 불립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 제2 고도화 시설을 성공리에 준공함으로써, 고도화설비 능력을 기존 일산 7만 8500배럴에서 일산 15만 2,500배럴로 개선하여 원유정제부문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정제능력 대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고도화율에서도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고 수준인 3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원유정제 후 약 40~50%를 차지하는 저가의 상업잔사유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휘발유·경유 제품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황 함량 규격(15ppm 이하)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등 전세계 주요 선진국에 석유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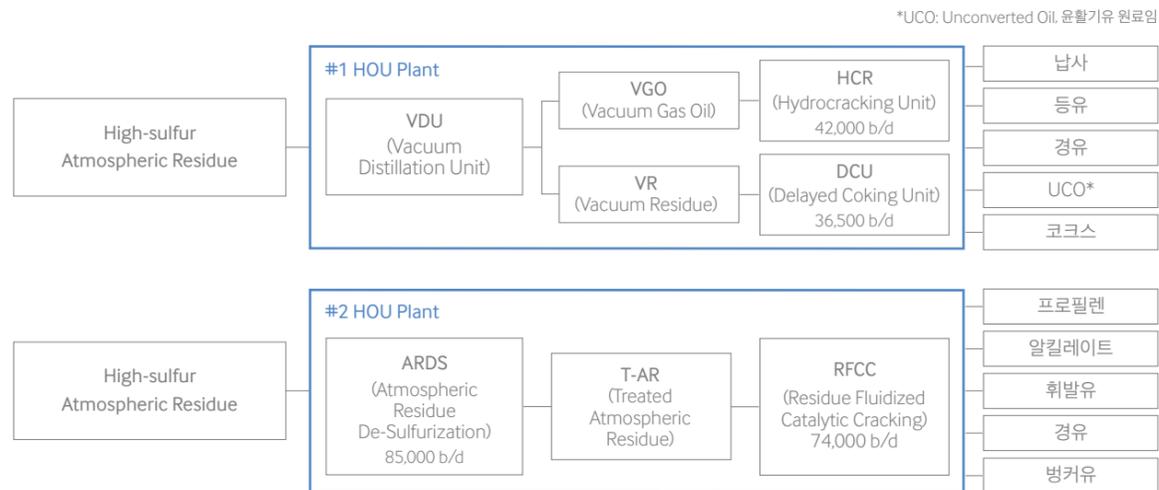
제1 고도화 시설

현대오일뱅크는 제1 상업증류공정에서 생산된 중유를 분해하는 제1 고도화 시설과, 제2 상업증류공정에서 생산된 중유를 분해하는 제2 고도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 고도화 시설은 1989년부터 가동된 등유와 경유를 주로 생산하는 시설로, 수첨분해공정과 열분해공정이 있습니다. 제1 고도화 시설의 일일 정제 가능 규모는 수첨분해공정 4만 2,000배럴, 열분해공정 3만 6,500배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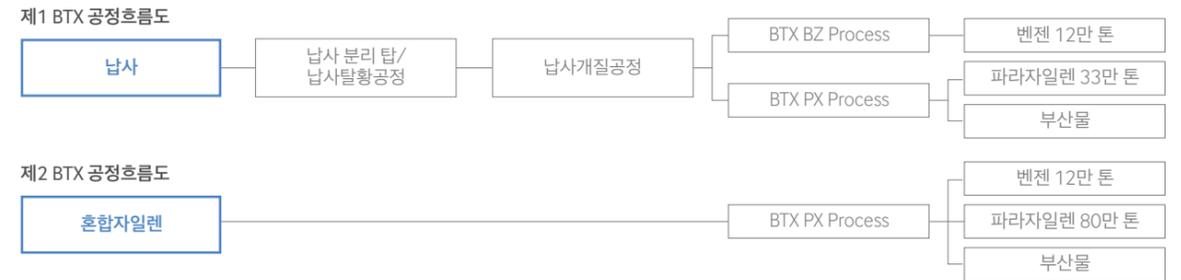
제2 고도화 시설

제2 고도화 시설은 원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중유에 수소를 첨가해 황 성분을 제거하는 중질유탈황공정 설비와, 중질유탈황공정을 거친 중유를 원료로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원료인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중질유접촉분해공정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 고도화 시설의 일일 정제 가능 규모는 중질유탈황공정 8만 5,000배럴, 유동중접촉분해공정 7만 4,000배럴입니다.

고도화 시설(HOU) 공정흐름도



BTX 공정흐름도



윤활기유 공정흐름도



콘덴세이트/혼합자일렌 공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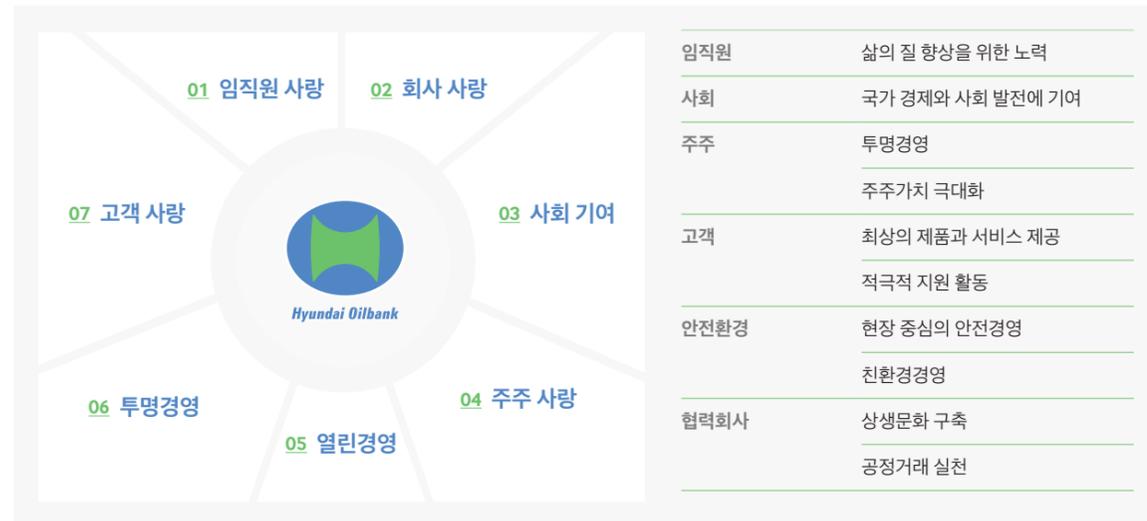


MANAGEMENT REVIEW

46	경영이념
47	경영전략
48	윤리경영
4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50	리스크 관리
52	품질 정책
54	마케팅 정책
56	환경경영
58	사회공헌

경영이념

현대오일뱅크는 기업 본연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를 수 있는 경영에 대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이념은 일곱 가지 세부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진

고객과 주주,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현대오일뱅크는 각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예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고객 가치를 창조해 나가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속적인 가치 창조를 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임을 인식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 받는 기업을 위한 경영활동

현대오일뱅크는 투명경영, 열린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사회적 제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며,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임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주주,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전략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유가 급락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6,29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도 경제성 있는 원유의 지속 발굴, 해외 고마진 시장 개발, 고수익 공정 처리량 증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며, 안전 최우선 공장 운영을 통해 무재해 700만 인시(work hours)와 '비상가동정지 Zero'를 달성하겠습니다.



2016년 전략 과제

원가 경쟁력 우위 지속	원유 도입 경제성 향상	- 초중질 원유 등 저가 원유 도입 확대 - 신규 원유 지속 발굴
	수익 개선 활동 강화	- 고수익 공정 처리량 증대와 생산 효율 제고 - 내수 판매 마진 개선과 해외 고마진 시장 개발
안전 최우선의 공장 운영	안전문화 정착	- '비상가동정지 Zero' - 무재해 700만 인시 달성 - 공정안전 노하우 전파를 통한 공장안전 역량 강화

윤리경영

현대오일뱅크는 윤리경영의 도입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도에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 편입 후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정책을 시행하여 더욱 투명한 경영과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윤리경영을 통해 고객과 협력회사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 국가와 사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 체계

현대오일뱅크는 윤리헌장, 윤리규범, 직무윤리 실천지침의 윤리경영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기반한 경영철학의 함축적 선언입니다. 또한 윤리헌장을 부문별로 구체화하여 윤리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 구체적 행위판단과 업무처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직무윤리 실천지침 등의 세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6개 직무에 대해서는 특정직무 윤리규범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천 프로그램

클린노티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은 2013년부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선물은 물론이고 경조금, 식사 등을 일체 수수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화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 즉각 반환/반송하고 반환/반송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신고	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이나 협력회사 임직원이 거래상대방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회사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하도록 조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와 포상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정당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제보자를 제보자 포상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사이버 신고	윤리경영 홈페이지(http://ethics.oilbank.co.kr)를 통하여 윤리경영제도와 추진경과에 대하여 소개하고, 윤리헌장을 비롯한 각종 윤리규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본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Q&A' 등으로 윤리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위반행위, 부정 또는 비리행위, 불공정 거래 등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신입사원과 승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이 매월 윤리경영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 맞춤형 사이버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한 경쟁질서 준수는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생의 길을 엽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활동 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적용

현대오일뱅크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경영활동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위반행위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노력

현대오일뱅크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 표명과 함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의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준법점검과 업무 사전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시스템과 CP 관련 문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내부준법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주요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실천사항

핵심 요소	실천사항
CEO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 천명(전자문서, 홈페이지)
자율준수관리자(CCO) 선임과 운영	경영지원본부장 임명(주관부서: 정책지원팀)
자율준수편람 작성과 배포	2003년 12월 편람 발간과 배포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교육(법령 제/개정 교육, 자율준수담당자 교육, 자율준수점검 병행교육, 신입사원·경력사원·팀장·주유소장 교육 등) 외부위탁교육(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관) 사이버연수원(온라인 교육)
내부감독체계 구축	공정거래 업무규정과 전사 업무절차서 내부고발 시스템(CP상담실, 공정거래 신문고 등) 운영 공정거래 준법점검 실시, 업무 사전검토 시스템 운영
법규 위반자 제재 시스템 구축	인사규정(포상, 징계규정)에 따라 제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최고 '해고'까지)
문서관리체계 구축	CP 운영 관련 온/오프라인 문서관리(관리부서: 정책지원팀)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유가와 환율 변동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정유시장의 특성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

현대오일뱅크는 석유가격 변동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외환 리스크, 유가 리스크, 정제마진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대부분이 선적월 가격 기준으로 계약되고, 이로 인해 운송 기간(1개월) 동안 발생하는 가격 변동이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유가 변동에 의한 손실 방지를 위해 가동 마진에 대한 헷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정가 입찰, 비축유/시설 임차 거래 시 반드시 헷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월물차 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 월물차에 영향을 받는 물량을 리스크 노출 물량으로 정의하고, 유가 상황에 따라 리스크 노출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노출 물량은 우선 실물의 가격 기준 조정을 통해 조정하고 추가로 스왑거래 헷지를 통해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 다변화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산 원유 도입에 따르는 지정학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원유 도입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유 구매 지역이 중동에서 남미, 북해 등으로 확대되면서 원유 구매 가격 기준 또한 두바이에서 서부텍사스(WTI), 브렌트로 다양화되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원유 도입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규 도입 원유를 확대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외환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원재료 도입 및 제품 수출이 외화 기반으로 이뤄지는 업종 특성상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분기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대내외 거시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헷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외환 리스크 관리 전담 부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헷지 전략을 토대로 환위험 노출분(Exposure)에 대해 적극적인 헷지를 시행하여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품질 정책

현대오일뱅크는 최우선 가치인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철저한 단계별 품질 점검과 체계적인 품질불만 대응 체계를 실시하여 사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방침과 품질관리 활동

현대오일뱅크는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모든 유통과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유통단계에 대한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해, 사전품질점검 업무를 연중 시행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연료 품질검사에서도 모두 합격했습니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고 정유 4사 등 국내 다수의 석유 관련 시험실이 참가한 2014년, 2015년 '연료·LPG·아스팔트 정밀도 비교시험'에서 전 유종, 전 항목에 걸쳐 품질시험의 객관적 신뢰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잘 이행하여 품질과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중앙기술연구원



제품 품질 테스트

품질불만 처리절차



품질불만 대응체계

현대오일뱅크 품질운영팀은 고객의 품질불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접수된 불만사항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고객과 공유합니다. 조치 과정에서 고객의 품질불만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을 제거하여 고객 관점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시적이고 신속한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해 판교에 최첨단의 실험분석 장비를 갖춘 "고객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품질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고객불만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규정에 의거하여 72시간 내 고객방문 및 불만사항 협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샘플을 채취하여 고객불만 사안별로 품질 테스트 항목을 정해 분석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품질불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 영업사원과 주유소 운영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현대오일뱅크 품질책자'를 발간하여 전 임직원이 고객 품질불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물질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견인차, 중앙기술연구원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1년 11월 사업구조 다각화와 신사업 추진의 견인차로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R&D 전문 연구센터인 '중앙기술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중앙기술연구원은 대산 본사와 서울, 부산 등 전국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는 기술개발 기능과 연구 인력을 통합한 현대오일뱅크의 차세대 연구개발 메카로서, 원유정제 신기술은 물론 촉매 기술, 윤활기유, 차세대 연료, 석유화학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과 미래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대학과의 산학 협력,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동 사업 추진, 외국 기업과의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 기술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일본 BTX 합작 파트너인 코스모석유와 R&D 분야를 비롯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술 인력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10월, 당사 제1 경유탈황공정(#1 GHT)의 코스모사 촉매 도입을 확정하여 촉매 원천기술 확보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유 탈황 촉매 최초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최적화된 촉매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기술연구원은 우수 인재의 요람이자 신성장동력 발굴의 견인차로서,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기술연구원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문제 해결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촉매 제조 기술 연구, 폐촉매 재생 기술, 파일롯플랜트 활용 공정 촉매 최적화, FBC 탈황 기술, 해양기회원유 처리 기술, 코크스 가스화, 제철화학, 프로필렌 유도체, 윤활유 기술, 고부가 용제, 불용성 유황 기술, 개질 아스팔트, 방향족 제품 다변화 등 유망 사업 분야 진출에 필요한 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우수 인재의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회사의 위상과 비전에 걸맞은 기술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마케팅 정책

현대오일뱅크는 다양한 브랜드 가치 활동,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제휴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로열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확대 및 계열 주유소와의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영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

현대오일뱅크는 2010년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새 출발한 이후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친근한 기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6년 연속 한국프로축구 타이틀 스폰서십, 울산현대축구단 스폰서십 등 스포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잠재고객인 대학생 대상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보너스포인트 기부 활동 등을 통해서도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100년을 향한 희망과 나눔’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기업 이미지와 더불어 신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론칭한 유탄유 제품 브랜드 ‘엑스티어’와 2014년 신규 사업 진출한 연료첨가제 브랜드 ‘엑스티어 알파’의 조기 시장 진입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고객 이 직접 제품을 체험하는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외관, 유니폼, 광고물, 사무실 등 모든 공간에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최접점인 주유소에 회사 고유 캐릭터와 아트월 등을 적용하여 브랜드 선호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절/청결 서비스 품질 향상

현대오일뱅크는 친절하고 청결한 주유소 이미지 구축을 위해 ‘Good Service Bank!’라는 서비스 슬로건에 맞춰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서비스와 지역 제휴 전문가인 ‘MD(Market Designer)’를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주유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문화 공연 등과의 제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 고객이 직접 우수 친절 주유소를 추천하는 ‘서비스 캠페인’, 표준화된 서비스 시범과 주유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서비스팀’, 고객 관점에서 마케팅 활동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고객자문단/온라인 서포터즈/모니터링 회원’ 등을 운영하여 고객의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여 현대오일뱅크만의 차별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오일뱅크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15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주유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현대오일뱅크 고객센터는 2015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 부문에서 7년 연속, 2015년 한국표준협회 주관 ‘콜센터 품질지수(KS-CQI, Korean Standard-Contact Service Quality Index)’에서 4년 연속 업계 1위에 선정되는 등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 확대

현대오일뱅크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자동차, 보험, 식음료/외식 업계 등 각 업종별 국내 선두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보너스카드 포인트 적립/사용처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제휴 신용카드 출시와 ‘BC카드 Oh! Point’와 같이 포인트로 주유금액을 대체 결제할 수 있는 제휴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공연과 축제, 할인점 제휴 등 전국의 지역별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미있고 혜택이 가득한 주유소’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고객 로열티 강화

현대오일뱅크의 마케팅 정책은 1,300만 명에 달하는 보너스카드 고객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고객 유치부터 고객 유지 등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고객 CRM’, 주유소별 영업 환경을 고려한 ‘주유소 맞춤형 CRM’, 제휴사 고객까지 확대 시행하는 ‘제휴 CRM’ 등 다양한 CRM 캠페인 활동을 통해 고객 관리와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너스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엑스티어 알파 무료 체험 페스티벌’, ‘햄살가득 마음가득 페스티벌’, ‘한술 오코밸리 제휴 이벤트’ 등 경쟁사 대비 차별 우위를 가진 프로모션을 통해 보너스카드의 가치를 증대하여 고객 로열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계열 주유소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현대오일뱅크는 계열 주유소, 충전소 경영인 우대 프로그램인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해 ‘세심한 배려’와 ‘감동’을 전하여 주유소 경영인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경영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퀵스 파티’, ‘광역본부별 가족캠프’, ‘도심 속 만찬’, ‘찾아가는 셰프의 만찬’ 등 가족초청 프로그램과 대형 병원 건강검진 할인, 여행 시 숙소 할인, 경조용품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판촉품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의 생수와 물티슈를 전국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주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합주유소 1호점



드럼팀 드럼 퍼포먼스

환경경영

현대오일뱅크는 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교육과 환경점검 등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환경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 경영체제

현대오일뱅크는 환경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환경방침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 체제에 관한 국제 표준)을 취득하였으며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교육 등 관련 자료를 환경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화학사고 발생 대비
방제훈련 실시



환경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시스템 주요 분야

사전 환경평가	현대오일뱅크의 모든 경영 활동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환경목표 관리·공표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목표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조사·검토 및 감사를 실시하며, 설정된 목표는 공표에 공표합니다.
환경관리 규정 준수	현대오일뱅크는 국제환경협약, 국내의 환경법규와 현대오일뱅크가 정한 환경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현대오일뱅크는 자체의 환경목표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방제능력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현대오일뱅크는 전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환경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동기 부여에 주력합니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현대오일뱅크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경영 전반에 걸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환경 투자

현대오일뱅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적방지시설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펌프, 밸브 등과 같은 비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 Repair), 출하시설에 대한 유증기회수설비(VRU: Vapor Recovery Unit)와 공정배수로 밀폐 작업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약 13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 기후변화 대응

현대오일뱅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원단위 관리, 공정개선, 폐열회수, 운전방법 개선 등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 에너지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저탄소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환경협의회 및 환경점검

현대오일뱅크는 전사 환경리스크 사전 예방과 제거를 통해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체적으로 정기 환경점검과 환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점검	환경협의회
- 사전 점검을 통한 환경 위험요소 발굴	- 환경투자 계획 수립, 집행 실적 파악
- 환경점검 결과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관리	-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환경 법규, 규정과 지침 준수 여부 확인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모니터링
- 시설물 관리상태 현장 확인	- 주요 법규 개정 사항에 대한 공유
- 분기별 1회 실시: 직영주유소, 물류센터, 생산본부	- 분기별 1회 실시: 영업본부, 생산본부

화학사고 등 비상시 대응 프로그램

현대오일뱅크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부 및 대산공단 인근 회사들과 합동으로 화학사고안전지원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방제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고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사고 시나리오별로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	주요 역할
환경부, 현대오일뱅크, 엘지화학, 삼성토탈, 롯데케미칼, KCC	- 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 발생 지점과 물질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 사고 발생 시 각 사별 비축 방제장비 지원과 사고 사업장 외부 방제 지원 - 지역 산단 내 정보 공유와 비상연락망 시스템 구성

사회공헌

‘사랑가득 희망에너지’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기업,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기업, 푸른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현대오일뱅크의 사회공헌 슬로건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에너지를 통한 사랑의 실천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 자영주유소가 동참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주보면서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을 모티브로 고객,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현대오일뱅크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입니다.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따뜻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2011년 9월부터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본인 급여의 1%를 매월 기부하는 것은 국내 대기업 중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으로 다른 기업들과 자영주유소, 임직원 가족에게까지 동참을 이끌어내며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급여 1% 나눔과 봉사의 실천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현대오일뱅크는 본사가 위치한 충남 서산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쌀 구매사업’을 통해 매년 10억 원 상당의 쌀을 구매하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안 어족 자원 확충을 위하여 2002년부터 시작된 ‘우럭방류사업’으로 인근 해역에 우럭 중간성어 15만 마리를 방류하여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럭방류사업은 ‘삼길포 우럭축제’라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삼길포 바닷가 청소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발족된 현대오일뱅크 장학사업회는 본사 인근 지역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매년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에는 천연 잔디구장을 비롯해 농구장, 배구장, 생활시설을 갖춘 1만 7,400㎡ 규모의 현대대죽공원을 완공하여 서산시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2014년 6월에는 서산 화곡저수지 공원화 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생태공원과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삼길포 연안 정화 활동



지역쌀 구매 사업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더하여 회사에서 봉사시간 당 1만 원을 매칭그랜트로 봉사 대상 기관에 기부하고 있으며,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부서별, 또는 동호회 단위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매년 5,0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

현대오일뱅크는 모기업인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 고통 분담을 위해 국내 4개 정유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1,000억 원 특별기금에 출연하여 에너지 소외 계층과 건전한 에너지문화의 보급·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사1병영 우수 기업으로서 자매결연 부대인 해병대 연평부대와 활발한 교류활동과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유를 지원하고, 영세화물운전자와 해양경찰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유 고객들과 함께 하는 보너스 포인트 나눔캠페인을 통해서도 해외 저소득 국가의 불우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지원

현대오일뱅크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직영주유소 세차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 21명의 장애인이 세차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가족봉사



사랑의 난방유



장애인 세차도우미 가족 나눔이

FINANCIAL REVIEW

- 62 경영성과 분석의견과 전망
- 7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73 연결재무제표
- 8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동 보고서 작성시점의 사건과 재무성과에 대하여 당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과 기타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 경영 관련 요인과 외부환경으로 인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 상에 당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당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당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경제 및 시장 상황

1. 2015년 경제 현황

2015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내수 부진을 겪었으며, 유가 급락과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이르러 메르스 충격 완화, 추가경정예산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는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은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유로존과 일본은 미약한 회복세를, 신흥개도국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의 소비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길 것으로 보이나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흥개도국은 원자재 수출 부진,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상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미국의 셰일오일을 비롯한 OPEC회원국의 원유 공급량 확대 그리고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원유 수입량 감소 등으로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원유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원유 공급 과잉 가능성도 추가적인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 상황

1) 국제 원유시장 및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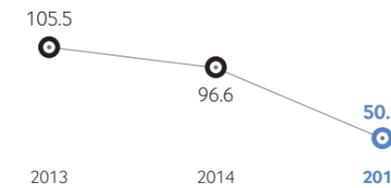
국제 원유시장은 석유의 유한성, 지역적 편중성,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석유가격의 불안정성 등의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구조로 본다면 공급 측에 의해 시장이 조절되는 공급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중동에 몰려 있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전세계 확인매장량의 75%를 차지하며 전세계 연간 생산량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은 OPEC의 회원국이므로 국제 원유시장에 대한 OPEC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비OPEC국가들의 국제 원유시장 점유율이 예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제 원유의 가격은 단지 OPEC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비OPEC국가들의 움직임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는 세계 석유 수요량, 비 OPEC 지역에 의한 공급, 원유 재고량 등이 있으며, 지정학적 요인에는 이란과 OPEC 국가 간의 생산량 갈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 선물시장이나 투기자금 행태 및 전략에 의한 기타 금융상품적 요인도 국제유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셰일오일 생산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40달러 초반까지 급락하였으나, 중동 정정 불안 및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6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4분기에는 중국 경기 둔화 및 원유 공급량 증가 영향 등으로 30달러 중반까지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도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유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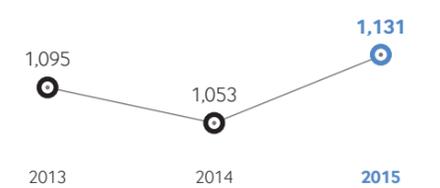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 변동 추이

단위: US\$/배럴



평균환율 변동 추이

단위: 원/US\$



원달러 환율은 2014년 하반기 일본은행의 2차 양적완화정책 강화에 따른 엔화 약세에 이끌려 상승세로 전환한 후 미국경제 회복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원달러 환율은 중국 등 신흥개도국 경제의 부진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국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거나, 국제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될 경우, 이는 환율상승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2) 국내 정유산업 개요

국내 정유산업은 1990년대 초반 정유사들의 대규모 증설을 통해 2015년 말 기준 하루 268만 4,000배럴의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6위 규모의 상압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 수출경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 급락은 국내 산업의 생산 비용 감소, 수익성 개선, 내수 및 수출 증가를 통해 시차를 두고 전반적인 산업생산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14년의 급격한 유가 하락은 음의 재고효과를 통해 정유업계의 이익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유업계의 원유 도입 가격이 낮아지고, 석유 제품의 수요가 진작되어, 2015년도 정제마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유시장 공급과잉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계는 한동안 저유가에 따른 수요권인 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6년에도 저유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 비율과 공정효율 최적화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안정화와 내수 및 수출 마케팅 강화를 통하여 경쟁업체 대비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정제능력	단위: 천 배럴/일	고도화 비율	단위: %
현대오일뱅크	390	현대오일뱅크	39.1
SK	840	SK	23.7
GS	785	GS	34.9
S-OIL	669	S-OIL	22.1

II. 주요 재무성과

1. 주요 경영 성과

단위: 억 원

주요 재무지표	2015	2014	변동	
1. 매출액	130,096	213,241	-83,145	-39.0%
2. 매출원가	120,088	207,657	-87,569	-42.2%
3. 매출총이익	10,008	5,584	4,424	79.2%
4. 판매비와관리비	3,715	3,322	393	11.8%
5. 영업이익	6,294	2,262	4,032	178.2%
6. 금융손익	636	-1,377	2,013	-146.2%
7. 기타영업외손익	-159	-159	-	0.0%
8. 지분법손익	-205	-541	336	-62.1%
9. 당기순이익	4,512	42	4,470	10,642.9%
영업이익률	4.84%	1.06%		3.78%p
당기순이익률	3.47%	0.02%		3.45%p

*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 급락과 대내외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당사는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목표로 원유 도입에서 생산, 판매까지 수익성을 제고하고, 신사업 조기 안착을 통한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경영에 있어서도, 공장가동량의 탄력적 조정을 통해 정제마진을 밀착 관리하였고, 제품 재고량 관리를 통해 재고 관련 손익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연중 끊임 없이 기울여왔습니다. 당사는 수익성이 높은 고도화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지속적인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정유부문에서 5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하였고, 14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에 의해 구축된 당사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FCB보일러 신설, 폐열회수 및 에너지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절감, 고도화 공정 효율성 증대 및 공정자동화를 통한 운전개선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둘째, 원유 도입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북해산 포티스, 러시아산 소콜, 멕시코산 이쓰머스 등 중동 외 원유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C5C6 및 솔벤트 자일렌 등의 신규 도입기재 발굴을 통해 부재료 도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당사는 꾸준한 투자로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안전하게 가동하여 무재해 500만 인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최고 수준의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2. 매출액 분석

1) 매출

2015년은 세계적 불황의 여파로 석유 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저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기본으로 하여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시장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신규개발 강화로 판매력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있는 판매망 구축을 통해 수익을 개선하며, 신사업 추진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경로별 판매전략

당사는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판매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를 수익극대화과 연결시키기 위해 판매채널별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매

주유소, 대리점, 농협, 일반판매소, LPG충전소 등에 제품을 판매하며, 소매채널을 통해 주로 경질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매채널은 내수의 근간이 되는 채널로 당사는 전략지역의 신규 개발을 확대하고 광고, 매스프로모션 강화 등을 통해 소매채널의 판매를 증대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한편, 주유소 친절/청결 서비스를 정착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복합주유소의 개발을 통해 영업이익 증대와 자산가치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매

일반산업체, 군/관남, 입찰 등의 법인영업 채널로서, 소매채널이 주로 경질유를 공급하는 것과 달리 해상유, 항공유, 아스팔트, 납사유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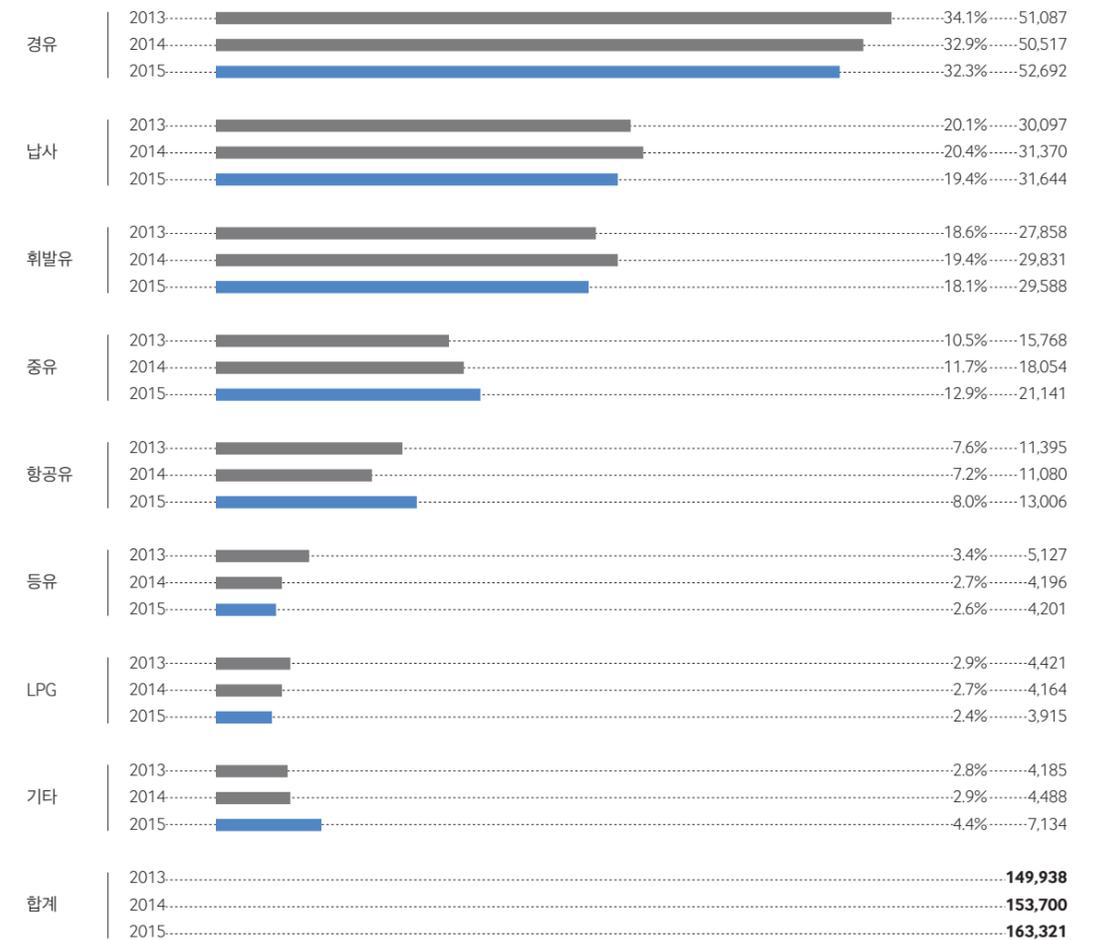
당사는 2011년 고도화 시설 증설 완료 이후 가동량 증가 및 수출 품목 다양화로 수출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의 연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내수/수출 포트폴리오의 최적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판매 경제성이 높은 미주 지역 휘발유 수출과 싱가포르 벙커링 사업 진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제품별 판매량

고도화 설비의 가동 이후 정제능력 대비 고도화 비율은 2014년 36.7%에서 2015년 39.1%로 상승하여 국내 최고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솔린, 항공유, 등유, 경유 등을 포함한 경질유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판매량은 경유가 가장 높은 32.3%이며, 경유, 납사, 휘발유, 중유의 순으로 판매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도화 설비 가동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사업 경쟁력과 수익기반 강화로 연결되어 내수시장에서 경질유 시장점유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2.2%를 유지하는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품별 판매 비중

단위: 천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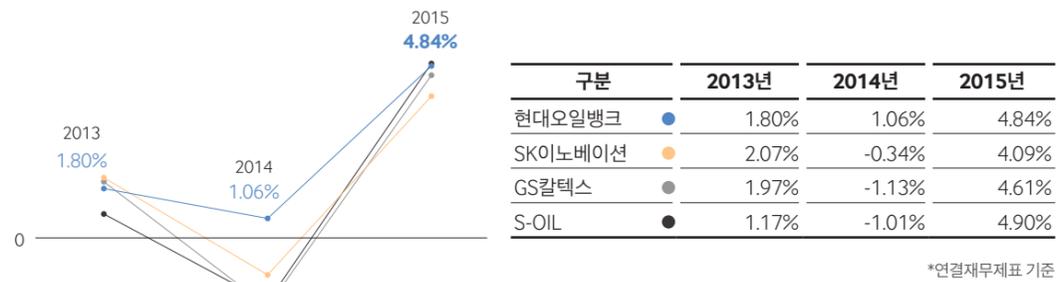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3. 수익성 분석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현

당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비율, 정제능력 대비 높은 내수시장 점유율,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2014년 외부 환경 악화로 경쟁사가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양호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정유부문에서 5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하고, 14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대 이란 제재 해제로 인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고, 미국 셰일오일과 OPEC원유 생산량이 유지됨에 따라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중심의 대규모 정유공장 신/증설, 운하 확장으로 인한 역외 유입 물량의 증가로 인해 역내 수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환경의 중장기 전망에 대응하여 신사업을 통한 이익 극대화에 주력할 것이며,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 고마진 해외 시장 개발과 각 본부별 적극적인 수익개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에도 원유 도입, 생산, 영업단계 모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사 대비 월등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미래 투자 분석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연구개발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일 중앙기술연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중앙기술연구원은 기술개발팀, 기술전략팀, 공정기술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개발팀은 당사의 미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장 현장과 밀접하며, 상용화를 목표로 정유 및 석유화학 제품, 공정축매 최적화, 폐기물 자원화, 그린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전략팀은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개발된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과제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개발 완료된 연구과제가 안정적으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정기술팀은 중장기 투자, 에너지 효율화, 공정 최적화 등의 공정 개선 및 효율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재무 현황

1) 요약 재무 상태

2015년 말 현재 당사의 자산총계는 7조 5,601억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유동자산은 32.9% 감소하였으나, 이는 저유가에 따른 재고자산 및 채권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결과이며, 유동비율은 119.1%로 2015년 대비 24.0%p 증가하여 재무유동성은 전년대비 더욱 양호해졌습니다. 또한 중장기 성장 동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꾸준한 신사업 투자 활동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하였고, 비유동자산은 7.5% 증가한 5조 5,03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유동부채는 당사의 원유도입 다변화 관리, 경제성 높은 원유의 도입 확대 등의 노력과 2015년 유가급락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6.4% 감소한 1조 7,2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유동부채는 4.2% 증가한 2조 710억 원이며, 당사의 부채총계는 3조 7,983억 원으로 2014년 대비 27.1%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신증자본증권의 발행과 당기 높은 영업이익의 실현으로 인해 전년대비 26.5% 증가한 3조 7,618억 원으로 보유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74.2%p 감소한 101.0%로 재무구조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단위: 억 원

주요 재무지표	2015	2014	변동	
유동자산	20,571	30,636	-10,065	-32.9%
비유동자산	55,031	51,214	3,817	7.5%
자산총계	75,601	81,850	-6,249	-7.6%
유동부채	17,274	32,233	-14,959	-46.4%
비유동부채	20,710	19,872	838	4.2%
부채총계	37,983	52,105	-14,122	-27.1%
자본금	12,254	12,254	-	0.0%
신증자본증권	224	-	-	-
자본잉여금	-760	-751	-9	1.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	-65	43	-66.2%
이익잉여금	21,014	16,823	4,191	24.9%
비지배지분	2,890	1,484	1,406	94.7%
자본총계	37,618	29,745	7,873	26.5%
부채비율	101.0%	175.2%		-74.20p

*연결재무제표 기준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2) CAPEX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연구개발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DA신설 및 고도화 고정 용량 증대, FBC보일러 추가 건설, 대산단지 부산물 활용 사업 등의 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투자 및 자본투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 원

	2015	2014	변동	
신규투자	2,006	1,295	711	54.9%
보완투자	1,345	1,324	21	1.6%
자본투자	1,946	1,250	696	55.7%
합계	5,297	3,869	1,428	36.9%

*연결재무제표 기준

6. 유동성 및 자금조달

1) 유동성 현황

2015년 말 현재 당사의 유동비율은 119.1%로 2015년 대비 24.0%p 증가하여 재무유동성이 전년대비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정유산업의 불안정성이라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당사는 유동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운영자금 등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해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자금조달

당사는 신규 회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구조의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총차입금은 약 2조 1,486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 3,25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당기 만기 도래한 단기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말 총부채는 3조 7,983억 원으로 전년대비 27.1%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도 전년대비 74.2%p 감소한 101.0%로 전반적인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III. 2016년 경영 전망

2015년에 당사는 내실 있는 경영에 주력하여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였으며, 경쟁사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업 효율 증대와 지속적인 사업 다각화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당사는 정유부문에서 5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하는 한편, 14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익 관리능력을 실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15년은 저유가의 장기화와 역대 수출경쟁의 심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요구 받은 한 해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석유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기존 사업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사업으로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경영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원유 도입 경제성 향상입니다. 초중질 원유 등 저가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신규 원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둘째, 수익 개선 활동 강화입니다. 고수익 공정 처리량 증대와 생산 효율 제고에 힘쓰고, 내수 판매 마진 개선과 해외 고마진 시장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 셋째,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비상가동정지 Zero'와 무재해 700만 인시 달성을 이뤄내고, 고정운전 노하우 전파를 통한 공장 운전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전략과제의 수행을 통해 원가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고, 안전 최우선의 공장을 운영하여, 2016년에도 업계 수익성 1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의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안경태

安景泰

2016년 3월 7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6년 3월 7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단위: 천 원

과목	주석	제 52 (당) 기	제 51 (전) 기
자산			
I. 유동자산		2,057,058,623	3,063,626,54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50,139,265	434,504,203
2. 단기금융자산	8	36,031,187	14,027,932
3. 매도가능금융자산	9	-	1,076,185
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0	1,206,981	210,780
5. 파생상품자산	20	27,838,652	610,613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32	670,563,467	1,105,037,355
7. 재고자산	11	955,228,791	1,404,721,111
8. 기타유동자산		116,050,280	103,438,370
II. 비유동자산		5,503,089,516	5,121,439,836
1. 관계기업투자	12	82,731,734	110,029,185
2. 장기금융자산	8	1,023,500	2,023,500
3. 매도가능금융자산	9	3,000,000	3,000,000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	127,057,928	144,796,794
5. 투자부동산	13	10,634,973	10,634,973
6. 유형자산	14	5,183,619,088	4,758,498,892
7. 무형자산	15	93,616,376	88,469,079
8. 파생상품자산	20	229,398	489,482
9. 이연법인세자산	29	1,176,519	3,497,931
자산총계		7,560,148,139	8,185,066,385
부채			
I. 유동부채		1,727,368,222	3,223,340,998
1. 단기금융부채	17	301,244,150	1,699,232,421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0	3,568,072	1,230,297
3. 파생상품부채	20	26,107,900	168,159
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32	1,184,935,874	1,433,612,835
5. 미지급법인세	29	96,630,175	2,494,390
6. 총당부채	19	7,117,476	3,620,356
7. 기타유동부채		107,764,575	82,982,540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단위: 천 원

과목	주식	제 52 (당) 기	제 51 (전) 기
II. 비유동부채		2,070,964,625	1,987,201,540
1. 장기금융부채	17	1,847,362,111	1,774,623,325
2. 파생상품부채	20	2,575,546	4,238,659
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	92,392,519	92,560,519
4. 순확정급여부채	18	13,261,804	11,179,150
5. 장기충당부채	19	1,714,815	2,153,000
6. 이연수익		28,380,914	28,531,581
7. 이연법인세부채	29	79,250,746	67,835,016
8. 기타비유동부채		6,026,170	6,080,290
부채총계		3,798,332,847	5,210,542,538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3,472,833,843	2,826,112,803
I. 자본금	21	1,225,412,110	1,225,412,110
1. 보통주자본금		1,225,412,110	1,225,412,110
II. 신종자본증권	22	224,272,850	-
III. 자본잉여금		(76,016,121)	(75,094,521)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	(2,186,580)	(6,474,769)
V. 이익잉여금	24	2,101,351,584	1,682,269,983
비지배지분		288,981,449	148,411,044
자본총계		3,761,815,292	2,974,523,847
부채와자본총계		7,560,148,139	8,185,066,38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손익계산서

제 52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51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단위: 천 원

과목	주식	제 52 (당) 기	제 51 (전) 기
I. 매출액	7,32	13,009,622,080	21,324,071,940
II. 매출원가	26,32	12,008,781,218	20,765,692,394
III. 매출총이익		1,000,840,862	558,379,546
IV. 판매비와관리비	25,26	371,475,283	332,198,842
V. 영업이익		629,365,579	226,180,704
VI. 금융수익	27	36,679,950	56,031,606
VII. 금융비용	27	137,678,335	193,681,222
VIII. 기타영업외수익	28	287,297,701	265,455,246
IX. 기타영업외비용	28	223,721,076	281,341,692
X. 지분법손익	12	(20,519,740)	(54,127,359)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71,424,079	18,517,283
XII. 법인세비용	29	120,195,381	14,363,939
XIII. 당기순이익		451,228,698	4,153,344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37,594,630	(5,321,836)
비지배지분		13,634,068	9,475,180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30	1,785	(2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52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51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단위: 천 원

과목	제 52 (당) 기	제 51 (전) 기
I. 당기순이익	451,228,698	4,153,344
II. 기타포괄손익	(14,075,908)	(15,507,39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2,075,232	1,263,900
2. 지분법자본변동	589,758	(498,444)
3. 해외사업환산손익	1,191,944	735,113
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489,449	(489,44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422,291)	(16,518,519)
III. 당기포괄손익	437,152,790	(11,354,05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23,967,985	(21,150,685)
비지배지분	13,184,805	9,796,63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자본변동표

제 52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51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단위: 천 원

과목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2014.01.01(전기초)	1,225,412,110	-	(22,619,670)	(7,113,114)	1,704,059,013	58,930,981	2,958,669,320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	-	-	-	(5,321,836)	9,475,180	4,153,344
2. 현금흐름파생상품	-	-	-	891,125	-	372,775	1,263,900
3. 매도가능증권	-	-	-	(489,449)	-	-	(489,449)
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6,467,194)	(51,325)	(16,518,519)
5. 지분법자본변동	-	-	-	(498,444)	-	-	(498,444)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35,113	-	-	735,113
소유주와의 거래							
1. 종속회사의 투자	-	-	(14,051)	-	-	15,990,633	15,976,582
2. 종속회사의 설립 등	-	-	(52,460,800)	-	-	63,692,800	11,232,000
2014.12.31(전기말)	1,225,412,110	-	(75,094,521)	(6,474,769)	1,682,269,983	148,411,044	2,974,523,847
2015.01.01(당기초)	1,225,412,110	-	(75,094,521)	(6,474,769)	1,682,269,983	148,411,044	2,974,523,847
총포괄이익							
1. 당기순이익	-	-	-	-	437,594,630	13,634,068	451,228,698
2. 현금흐름파생상품	-	-	-	2,017,038	-	58,194	2,075,232
3. 매도가능증권	-	-	-	489,449	-	-	489,449
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7,914,834)	(507,457)	(18,422,291)
5. 지분법자본변동	-	-	-	589,758	-	-	589,758
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191,944	-	-	1,191,944
소유주와의 거래							
1. 종속회사의 투자	-	-	(921,600)	-	-	127,385,600	126,464,000
2. 신종자본증권 발행	-	224,272,850	-	-	-	-	224,272,850
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598,195)	-	(598,195)
2015.12.31(당기말)	1,225,412,110	224,272,850	(76,016,121)	(2,186,580)	2,101,351,584	288,981,449	3,761,815,29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52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51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단위: 천 원

과목	주식	제 52 (당) 기	제 51 (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1,497,179,838	392,759,00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579,146,208	544,679,400
가. 당기순이익		451,228,698	4,153,344
나. 조정	31	509,428,221	432,598,832
다. 자산,부채의 변동	31	618,489,289	107,927,224
2. 이자의 수취		7,403,168	6,276,752
3. 이자의 지급		(84,422,235)	(117,686,578)
4. 법인세 납부액		(4,947,303)	(40,510,574)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705,332,576)	(452,180,964)
1.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47,177,495)	(48,621,104)
2.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25,674,239	55,083,645
3.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감소		9,827,133	19,954,031
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156,981	-
5.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500,000	500,000
6. 투자부동산자산의 처분		-	15,236,500
7. 유형자산의 취득		(732,547,669)	(579,099,648)
8. 유형자산의 처분		12,436,609	75,457,591
9. 무형자산의 취득		(2,174,923)	(1,808,260)
10. 무형자산의 처분		1,239,545	920,000
11.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7,212,150	-
12. 대어금및수취채권의 증가		(8,699,072)	(51,306,330)
13. 대어금및수취채권의 감소		26,219,926	61,502,61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단위: 천 원

과목	주식	제 52 (당) 기	제 51 (전) 기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978,112,275)	442,900,899
1. 단기차입금의 증가		3,973,380,625	9,748,595,52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5,021,853,175)	(9,301,917,377)
3.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62,898,193)	(152,212,769)
4. 유동성사채의 상환		(450,000,000)	(300,000,000)
5. 사채의 발행		398,273,300	597,419,099
6. 사채의 상환		-	(52,558,106)
7. 장기차입금의 증가		84,325,780	124,379,486
8. 장기차입금의 상환		(150,000,000)	(300,000,000)
9.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126,386,538	79,195,046
10. 신증자분증권의 발행		224,272,850	-
IV. 환율변동효과		598,692	231,127
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85,666,321)	383,710,062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34,504,203	50,595,955
VII.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성자산 변동		1,301,383	198,186
VI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50,139,265	434,504,20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

1. 일반 사항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이하 “회사”,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을 “연결회사”)는 1964년 11월 19일 설립되어,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남 대산에 본사 및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원유처리 능력 일 390,000배럴의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중공업주식회사가 전체 지분의 91.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및 전기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당기말 지배지분율	전기말 지배지분율	결산월	업종
HDO Singapore Pte. Ltd.	싱가포르	100%	100%	12월	석유제품트레이딩
MS Dandy Ltd.	마셜아일랜드	100%	100%	12월	선박대여업
현대오일터미널(주)	대한민국	70%	70%	12월	유류보관업
현대셀베이스오일(주)	대한민국	60%	60%	12월	유통기유제조업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중국	100%	100%	12월	석유제품트레이딩
현대케미칼(주)	대한민국	60%	60%	12월	원유정제업
Grande Ltd.	마셜아일랜드	100%	100%	12월	선박대여업

1.2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 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HDO Singapore Pte. Ltd.	161,621,142	138,311,318	3,672,248,845	2,164,656
MS Dandy Ltd.	17,450,544	11,959,374	1,538,953	(3,766)
현대오일터미널(주)	109,551,176	24,280,550	28,026,181	5,547,446
현대셀베이스오일(주)	392,588,590	209,002,287	568,792,493	31,152,541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28,149,013	23,839,110	201,202,404	297,010
현대케미칼(주)	569,206,102	93,725,195	-	(1,532,615)
Grande Ltd.	11,535,484	3,517,977	-	(66,878)

(2) 전기

단위: 천 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HDO Singapore Pte. Ltd.	350,630,787	333,289,999	6,961,228,861	2,840,857
MS Dandy Ltd.	17,294,096	12,140,357	1,436,921	(72,097)
현대오일터미널(주)	112,753,802	32,884,404	22,667,100	5,608,437
현대셀베이스오일(주)	429,771,822	277,277,764	345,045,308	20,958,459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42,485,184	38,498,753	353,761,312	675,440
현대케미칼(주)	164,553,062	5,050,344	-	(605,619)
Grande Ltd.	5,166,220	-	-	(19)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 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허용됩니다.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가득조건', '성과조건', '용역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개정: 영업부문 통합 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하고 보고부문들의 자산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개정: 보고기업 또는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 주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103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개정: 금융상품 집합의 공정가치를 순포지션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포트폴리오 예외조항이 비금융계약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제1103호가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연결회사가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신규로 적용한 기타 제·개정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기업의 연결 면제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또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5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수익인식과 주요한 차이로 재화나 용역이 묶음으로 제공될 때 구분되는 수행의무 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대가 인식에 대한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한 조건과 증가된 공시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지분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5)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1)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2)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3) 위 1), 2)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는 경우, 자본에 인식한 순투자에 대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의 처분손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당 해외기업의 자산·부채로 간주하며, 해당 해외기업 기능통화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복합상품에 대하여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주로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되고, 매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25~50	공기구비품	5
구축물	25~50	차량운반구	5
기계장치	2~36	기타의유형자산	2~6
선박	15		

연결회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 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 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 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 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상표권과 라이선스	4~20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 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5~5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 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 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 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 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 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 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6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총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 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 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 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 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 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 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 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석유류 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주석7참조).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16년 2월 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3. 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결회사는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9 참조).

연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총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1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환경복구와 관련한 총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5)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충성제도로 인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보상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과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이러한 보상에 배분할 대가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6)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18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통화선도 등의 파생상품을 통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당기	USD	EUR	JPY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28,935,360	-	-	28,935,360
매출채권	194,763,416	-	-	194,763,416
기타채권	95,153,432	-	-	95,153,432
소계	318,852,208	-	-	318,852,208
매입채무	(293,739,127)	(346,851)	-	(294,085,978)
기타채무	(11,197,103)	-	-	(11,197,103)
금융부채	(39,184,720)	-	-	(39,184,720)
소계	(344,120,950)	(346,851)	-	(344,467,801)

단위: 천 원

전기	USD	EUR	JPY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3,006,812	-	-	13,006,812
매출채권	173,191,148	-	-	173,191,148
기타채권	-	-	-	-
소계	186,197,960	-	-	186,197,960
매입채무	(397,761,159)	(524,103)	-	(398,285,262)
기타채무	(5,879,078)	-	(426,750)	(6,305,828)
금융부채	(672,452,717)	-	-	(672,452,717)
소계	(1,076,092,954)	(524,103)	(426,750)	(1,077,043,807)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효과는 보고통화인 원화에 대한 다른 통화들의 변동효과 합계로 계산된 것입니다.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은 해당통화의 5% 절상 및 절하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순효과에 파생상품으로 인한 헷지효과는 미반영되었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절상시	절하시	절상시	절하시
외화금융자산	15,942,610	(15,942,610)	9,309,898	(9,309,898)
외화금융부채	(17,223,390)	17,223,390	(53,852,190)	53,852,190
순효과	(1,280,780)	1,280,780	(44,542,292)	44,542,292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증권 관련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연결회사의 당기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은 주식 가격이 일정하게 30%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단위: 천 원

구분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당기	전기
지분증권	900,000	1,222,855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은 장기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 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 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연결회사는 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을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스왑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 스왑은 변동이자부 차입금을 고정이자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스왑계약에 따라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특정 기간(주로 분기)마다, 합의된 원금에 따라 계산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이를 결제하게 됩니다.

당기말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0.1%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한 변동이자부 장기 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당 회계기간에 대한 포괄이익은 543,213천원(전기: 769,842천원)만큼 감소 또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금액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249,913,780	434,237,478
단기금융자산	36,031,187	14,027,9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70,563,467	1,105,037,355
장기금융자산	1,023,500	2,023,5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7,057,928	144,796,794
합계	1,084,589,862	1,700,123,059

최대신용노출금액은 현금과 지분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과 일치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주석32참조).

(2)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대한민국	847,425,378	1,167,133,630
북미	1,144,327	10,276,711
아시아	228,306,446	517,568,470
유럽	3,119,837	3,812,257
기타	4,593,874	1,331,991
합계	1,084,589,862	1,700,123,059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4.1.3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연결회사 내의 개별 영업 종속회사들이 수행하고 연결회사의 자금팀이 취합합니다.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 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 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1)	잔존만기			
			6개월 이하	6개월에서 1년 이하	1년에서 3년 이하	3년 초과
단기금융부채	301,244,150	313,211,917	126,835,803	186,376,114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3,568,072	3,568,072	3,568,072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84,935,874	1,184,935,874	1,184,935,874	-	-	-
장기금융부채	1,847,362,111	1,986,874,103	20,398,900	20,423,063	953,606,940	992,445,2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92,392,519	92,392,519	-	-	7,392,519	85,000,000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28,683,446	28,683,446	26,868,267	690,414	1,124,765	-
금융보증계약	-	35,160,000	35,160,000	-	-	-

(*1) 지급예정 이자금액 포함, 현재가치할인차금 미포함입니다.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1)	잔존만기			
			6개월 이하	6개월에서 1년 이하	1년에서 3년 이하	3년 초과
단기금융부채	1,699,232,421	1,730,186,403	1,628,797,737	101,388,666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230,297	1,230,297	1,230,297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33,612,835	1,433,612,835	1,433,612,835	-	-	-
장기금융부채	1,774,623,325	1,925,938,142	17,468,750	17,468,750	886,498,003	1,004,502,639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92,560,519	92,560,519	-	-	7,560,519	85,000,000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4,406,818	4,406,818	940,659	758,490	2,056,757	650,912
금융보증계약	-	32,976,000	32,976,000	-	-	-

(*1) 지급예정 이자금액 포함, 현재가치할인차금 미포함입니다.

4.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자 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들에게 자본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부채	3,798,332,847	5,210,542,538
자본	3,761,815,292	2,974,523,847
부채비율	101%	175%

4.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상계되었거나 상계되지 않았으나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부채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순액
	부채 총액	상계된 자산총액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	상계되지 않은 금액		
				금융상품	현금담보	
미지급금	22,099,671	11,376,858	10,722,813	10,722,813	-	10,722,813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전기					순액
	부채 총액	상계된 자산총액	재무상태표 표시 순액	상계되지 않은 금액		
				금융상품	현금담보	
미지급금	27,840,712	12,013,048	15,827,664	15,827,664	-	15,827,664

회사는 동종업계의 타 회사들과 제품 등을 교환하고 있으며, 상기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상계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5. 금융상품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1,2)				
매도가능금융자산	-	-	1,076,185	1,076,18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206,981	1,206,981	210,780	210,780
파생상품자산	28,068,050	28,068,050	1,100,095	1,100,095
계	29,275,031	29,275,031	2,387,060	2,387,060
금융부채(*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3,568,072	3,568,072	1,230,297	1,230,297
파생상품부채	28,683,446	28,683,446	4,406,818	4,406,818
계	32,251,518	32,251,518	5,637,115	5,637,115

(*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했습니다.

(*2)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했습니다.

5.2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지분증권(비상장)	3,000,000	3,000,000

상기의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은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5.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06,981	-	1,206,98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3,568,072	-	3,568,072
파생상품자산	-	28,068,050	-	28,068,050
파생상품부채	-	28,683,446	-	28,683,446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1,076,185	-	-	1,076,18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10,780	-	210,78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1,230,297	-	1,230,297
파생상품자산	-	1,100,095	-	1,100,095
파생상품부채	-	4,406,818	-	4,406,81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5.4 가치평가방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방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방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통화선도	729,573	2	현재가치할인기법
기타(제품파생)	477,408	2	"
파생상품자산			
통화선도	1,395,404	2	"
기타(제품파생)	26,672,646	2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통화선도	230,785	2	"
기타(제품파생)	3,337,287	2	"
파생상품부채			
이자율스왑	2,575,545	2	"
통화선도	317,980	2	"
기타(제품파생)	25,789,921	2	"
투자부동산(공시되는 금액)			
투자부동산	10,846,150	3	감정평가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방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통화선도	210,780	2	현재가치할인기법
파생상품자산			
통화선도	1,100,095	2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통화선도	1,147,033	2	"
기타(제품파생)	83,264	2	"
파생상품부채			
이자율스왑	4,238,659	2	"
통화선도	168,159	2	"
투자부동산(공시되는 금액)			
투자부동산	10,846,150	3	감정평가

6. 범주별 금융상품

6.1 범주별 금융상품 금액

(1) 당기

단위: 천 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대어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	합계
		단기매매	당기손익 인식지정				
현금및현금성자산	250,139,265	-	-	-	-	-	250,139,265
단기금융자산	36,031,187	-	-	-	-	-	36,031,187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000,000	-	-	3,000,000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1,206,981	-	-	-	-	1,206,981
파생금융상품	-	-	-	-	-	28,068,050	28,068,05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97,621,395	-	-	-	-	-	797,621,395
장기금융자산	1,023,500	-	-	-	-	-	1,023,500
합계	1,084,815,347	1,206,981	-	3,000,000	-	28,068,050	1,117,090,378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합계
	단기매매	당기손익 인식지정			
단기금융부채	-	-	301,244,150	-	301,244,150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3,568,072	-	-	-	3,568,072
파생상품부채	-	-	-	28,683,446	28,683,44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277,328,393	-	1,277,328,393
장기금융부채	-	-	1,847,362,111	-	1,847,362,111
합계	3,568,072	-	3,425,934,654	28,683,446	3,458,186,172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금융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 전기

단위: 천 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	합계
		단기매매	당기손익 인식지정				
현금및현금성자산	434,504,203	-	-	-	-	-	434,504,203
단기금융자산	14,027,932	-	-	-	-	-	14,027,932
매도가능금융자산	-	-	-	4,076,185	-	-	4,076,185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210,780	-	-	-	-	210,780
파생상품자산	-	-	-	-	-	1,100,095	1,100,09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49,834,149	-	-	-	-	-	1,249,834,149
장기금융자산	2,023,500	-	-	-	-	-	2,023,500
합계	1,700,389,784	210,780	-	4,076,185	-	1,100,095	1,705,776,844

(*) 기타금융자산은 범주별 금융자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합계
	단기매매	당기손익 인식지정			
단기금융부채	-	-	1,699,232,421	-	1,699,232,421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1,230,297	-	-	-	1,230,297
파생상품부채	-	-	-	4,406,818	4,406,8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526,173,354	-	1,526,173,354
장기금융부채	-	-	1,774,623,325	-	1,774,623,325
합계	1,230,297	-	5,000,029,100	4,406,818	5,005,666,215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위험회피대상 금융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합계
이자수익	-	7,302,836	-	-	-	-	7,302,836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1,206,981	-	-	-	-	-	1,206,98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45,880,831	-	-	-	-	-	45,880,83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435,085	-	-	-	435,085
외화환산이익	-	652,397	-	-	3,228,503	-	3,880,900
외환차익	-	76,772,991	-	-	93,553,818	-	170,326,809
이자비용	-	-	-	(287,471)	(80,226,296)	-	(80,513,76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	-	(3,568,072)	-	-	(3,568,072)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	-	(35,034,181)	-	-	(35,034,181)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	(754,746)	(754,746)
외화환산손실	-	(705,280)	-	-	(2,482,267)	-	(3,187,547)
외환차손	-	(49,100,547)	-	-	(168,908,352)	-	(218,008,899)
대손상각비	-	(471,191)	-	-	-	-	(471,191)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합계
이자수익	-	6,291,411	-	-	-	6,291,411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210,780	-	-	-	-	210,780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81,184,410	-	-	-	-	81,184,410
외화환산이익	-	760,961	-	6,214,338	-	6,975,299
외환차익	-	70,434,154	-	129,694,748	-	200,128,902
이자비용	-	-	(27,757)	(111,064,585)	-	(111,092,342)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	(1,230,297)	-	-	(1,230,29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	(60,762,586)	-	-	(60,762,586)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551,173)	(551,173)
외화환산손실	-	(2,188,749)	-	(4,430,902)	-	(6,619,651)
외환차손	-	(47,699,290)	-	(220,796,372)	-	(268,495,662)
대손충당금환입	-	2,347,353	-	-	-	2,347,35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7. 영업부문

가. 영업부문별 정보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회사의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연결회사 수익의 상세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재화의 판매	12,922,009,510	21,260,954,077
용역의 제공	87,612,570	63,117,863
합계	13,009,622,080	21,324,071,940

다. 당기 중 매출의 10% 이상의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8. 사용제한금융상품

단위: 천 원

구분	내용	당기	전기
단기금융자산	정기예금	400,000	300,000
장기금융자산	당좌개설보증금	23,500	23,500
계		423,500	323,500

9. 매도가능금융자산

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세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지분증권(상장)	-	1,076,185
지분증권(비상장)(*)	3,000,000	3,000,000
합계	3,000,000	4,076,185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4,076,185	3,075,175
대체취득	-	1,721,896
평가	-	(645,711)
손상	-	(75,175)
처분	(1,076,185)	-
기말금액	3,000,000	4,076,185
차감: 비유동항목	(3,000,000)	(3,000,000)
유동항목	-	1,076,185

1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외상매출금	578,897,072	904,923,140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349,674)	(669,960)
미수금	91,082,144	199,830,651
대손충당금-미수금	-	(3,822)
미수수익	378,301	423,021
보증예치금	555,624	534,325
합계	670,563,467	1,105,037,35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연체되지않은채권	642,679,091	1,074,314,491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않은채권(*1)		
6개월이내	23,335,455	25,437,022
6개월초과	4,220,505	4,619,705
손상채권(*2)		
1년이내	333,835	429,992
1년초과	344,255	909,927
합계	670,913,141	1,105,711,137

(*1)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일시적으로 연체한 채권입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채권과 관련하여 설정된 총당금은 350백만원(전기: 674백만원)입니다. 손상채권 중 회수가능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673,782	3,974,791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환입)	171,191	(2,347,353)
제각 등	(495,299)	(953,656)
보고기간 말 금액	349,674	673,782

라.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장기대여금	73,548,535	90,624,095
대손충당금-장기대여금	(300,000)	-
보증금	53,809,393	54,172,699
합계	127,057,928	144,796,794

마.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	-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300,000	-
보고기간 말 금액	300,000	-

11. 재고자산

가. 재고자산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상품	19,679,376	60,722,076
제품	266,616,879	361,245,603
재공품	126,217,664	127,084,551
원재료	251,132,666	611,569,875
저장품	26,019,372	20,947,475
미착품	265,562,834	223,151,531
합계	955,228,791	1,404,721,111

나.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매출원가)	11,214,005,625	20,099,278,273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5,775,836)	5,106,518

12. 공동기업 및 관계회사투자

가. 공동기업 및 관계회사 주식의 내역

단위: 천 원

회사명	소재국	지분율(%)	당기		전기	
			취득원가	평가액	취득원가	평가액
공동기업						
현대코스모(주)	대한민국	50	291,100,000	82,731,734	291,100,000	102,661,716
관계회사						
현대자원개발(주)(*)	대한민국	-	-	-	7,500,000	7,367,469
합계			291,100,000	82,731,734	298,600,000	110,029,185

(*) 지분율은 20% 미만이지만,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당기 중 매각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변동 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처분	기말
현대코스모(주)	102,661,716	-	(20,519,740)	589,758	-	82,731,734
현대자원개발(주)	7,367,469	-	-	-	(7,367,469)	-
합계	110,029,185	-	(20,519,740)	589,758	(7,367,469)	82,731,734

(2) 전기

단위: 천 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기말
현대코스모(주)	157,258,900	-	(54,098,739)	(498,444)	102,661,716
현대자원개발(주)	7,396,088	-	(28,620)	-	7,367,469
합계	164,654,988	-	(54,127,359)	(498,444)	110,029,185

다.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미실현손실(이익)	발생액	실현액	기말미실현손실(이익)
현대코스모(주)	유형자산 매각	(113,961,788)	-	715,104	(113,246,684)
	무형자산 매각	(168,142)	-	33,629	(134,513)
	재고자산 판매	(463,519)	(841,882)	463,519	(841,882)
합계		(114,593,449)	(841,882)	1,212,252	(114,223,079)

(2) 전기

단위: 천 원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미실현손실(이익)	발생액	실현액	기말미실현손실(이익)
현대코스모(주)	유형자산 매각	(114,068,976)	785,539	(678,351)	(113,961,788)
	무형자산 매각	(201,770)	-	33,628	(168,142)
	재고자산 판매	(2,398,856)	(463,519)	2,398,856	(463,519)
합계		(116,669,602)	322,020	1,754,133	(114,593,449)

라. 당기말 피투자회사 요약 재무정보

단위: 천 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손익
현대코스모(주)	1,159,414,441	765,504,814	2,155,732,411	(41,780,218)

13. 투자부동산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순장부금액	10,634,973	25,921,563
처분	-	(15,286,590)
기말 순장부금액	10,634,973	10,634,973

당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12백만원(전기: 65백만원)이며,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116백만원(전기: 406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10,846백만원(전기: 10,846백만원)이며, 공정가치 평가는 독립된 평가인에 의해 수행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4. 유형자산

가. 유형자산의 주요 변동 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공기 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기타 유형자산	합계
기초취득가액	850,656,178	285,987,843	1,283,477,185	3,190,264,922	18,809,625	13,047,565	151,807,607	242,907,095	171,514,962	6,208,472,982
기초상각누계액	-	(59,833,349)	(389,032,330)	(762,074,700)	(1,802,589)	(11,773,261)	(113,696,203)	-	(111,761,658)	(1,449,974,090)
기초장부금액	850,656,178	226,154,494	894,444,855	2,428,190,222	17,007,036	1,274,304	38,111,404	242,907,095	59,753,304	4,758,498,892
취득	179,510	138,527	520,249	1,308,017	-	199,277	6,947,580	721,178,396	-	730,471,556
처분	(10,991,358)	(7,245,750)	(892,587)	(2,942,352)	-	(3)	(330,876)	-	(153,886)	(22,556,812)
대체 등	2,511,472	7,319,352	14,129,369	101,952,588	-	813,195	8,177,044	(195,229,526)	51,770,921	(8,555,585)
감가상각비	-	(7,119,560)	(37,013,173)	(175,779,087)	(968,109)	(596,208)	(16,014,200)	-	(38,371,344)	(275,861,681)
환산차이	-	-	-	-	1,091,715	-	1,776	529,227	-	1,622,718
기말취득가액	842,355,802	283,642,271	1,295,352,765	3,286,456,533	20,055,386	13,948,848	154,591,308	769,385,192	222,989,978	6,888,778,083
기말상각누계액	-	(64,395,208)	(424,164,052)	(933,727,145)	(2,924,744)	(12,258,283)	(117,698,580)	-	(149,990,983)	(1,705,158,995)
기말장부금액	842,355,802	219,247,063	871,188,713	2,352,729,388	17,130,642	1,690,565	36,892,728	769,385,192	72,998,995	5,183,619,088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공기 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기타 유형자산	합계
기초취득가액	921,561,133	287,740,886	1,172,343,742	2,769,316,196	18,058,403	12,867,936	142,660,345	316,551,358	124,913,689	5,766,013,688
기초상각누계액	-	(56,264,487)	(356,753,164)	(599,917,431)	(827,677)	(11,553,149)	(100,850,996)	-	(85,007,183)	(1,211,174,087)
기초장부금액	921,561,133	231,476,399	815,590,578	2,169,398,765	17,230,726	1,314,787	41,809,349	316,551,358	39,906,506	4,554,839,601
취득	5,647,434	249,064	459,924	857,452	-	40,197	7,711,663	567,146,433	-	582,112,167
처분	(63,202,462)	(5,848,715)	(1,496,027)	(2,521,556)	-	(16,753)	(887,366)	-	(1,338,523)	(75,311,402)
대체 등	(13,349,927)	7,485,542	114,519,422	427,343,193	-	653,576	6,733,289	(641,003,675)	49,856,692	(47,761,888)
감가상각비	-	(7,207,796)	(34,629,042)	(166,887,632)	(901,140)	(717,503)	(17,256,212)	-	(28,671,371)	(256,270,696)
환산차이	-	-	-	-	677,450	-	681	212,979	-	891,110
기말취득가액	850,656,178	285,987,843	1,283,477,185	3,190,264,922	18,809,625	13,047,565	151,807,607	242,907,095	171,514,962	6,208,472,982
기말상각누계액	-	(59,833,349)	(389,032,330)	(762,074,700)	(1,802,589)	(11,773,261)	(113,696,203)	-	(111,761,658)	(1,449,974,090)
기말장부금액	850,656,178	226,154,494	894,444,855	2,428,190,222	17,007,036	1,274,304	38,111,404	242,907,095	59,753,304	4,758,498,892

나. 유형자산 상각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256,631,366	235,367,733
판매비와 관리비	19,230,315	20,902,963
계	275,861,681	256,270,696

다. 사채, 장기 및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단위: 천 원, USD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	112,753,248				
건물	87,398,556	1,440,000,000		299,360,000	산업은행 등 대주단
기계장치	1,841,588,645				
토지	13,743,242				
건물	2,441,607	36,000,000		20,000,000	신한은행
구축물	19,797,300		차입금(주식 17)		
토지	8,563,065				
건물	3,493,969	234,000,000		195,000,000	외환은행 등 대주단
구축물	42,871,058				
기계장치	197,728,755				
선박	17,130,642	USD 10,136,089		USD 10,136,089	수협은행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5. 무형자산

가. 무형자산의 주요 변동 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영업권	개발비	회원권	기타무형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56,629,475	4,018,590	13,933,216	13,887,798	88,469,079
취득	-	25,062	2,149,861	-	2,174,923
처분	-	-	(2,361,346)	-	(2,361,346)
상각비	-	(1,804,326)	-	(1,432,448)	(3,236,774)
대체 등	-	3,754,016	-	4,801,491	8,555,507
환산차이	-	-	14,936	51	14,987
기말장부금액	56,629,475	5,993,342	13,736,667	17,256,892	93,616,376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영업권	개발비	회원권	기타무형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56,629,475	3,328,681	13,428,100	9,170,165	82,556,421
취득	-	370,545	1,437,715	-	1,808,260
처분	-	-	(940,240)	(98,599)	(1,038,839)
상각비	-	(1,219,120)	-	(1,091,861)	(2,310,981)
대체 등	-	1,538,485	-	5,908,021	7,446,506
환산차이	-	-	7,641	71	7,712
기말장부금액	56,629,475	4,018,591	13,933,216	13,887,797	88,469,079

나. 무형자산의 상각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545,682	274,718
판매비와 관리비	2,691,092	2,036,263
계	3,236,774	2,310,981

15-1. 영업권의 손상평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영업권은 과거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회사의 경영진이 영업권을 관리하는 단위인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부되었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영업권 배분금액
영업권	56,629,475

주요가정치	내용
영업이익률	7.58%
판매수량증가율(*1)	10.21%
영구성장율(*2)	(2.84%)
세전할인율(*3)	7.18%

(*1) 향후 5년간 현금흐름을 예측치를 산정하기 위한 가중평균 판매수량증가율로 과거 성장치를 기초로 산정됨

(*2) 5년이후 예상되는 산업보고서의 수치와 일관된 성장율

(*3) 예상현금흐름에 적용된 세전할인율

연결회사는 판매수량증가율을 과거의 실적과 시장개발에 대한 기대수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성장율은 산업보고서에 포함된 예측치와 일관된 것입니다.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유동:		
매입채무	547,926,996	904,671,609
미지급금	623,458,117	514,548,685
미지급배당금	598,195	-
미지급비용	12,952,566	14,392,541
계	1,184,935,874	1,433,612,835
비유동:		
장기미지급금	85,000,000	85,000,000
장기보증예수금	7,392,519	7,560,519
계	92,392,519	92,560,519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7. 장, 단기 금융부채

가. 단기금융부채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차입금	39,184,720	1,086,490,421
유동성장기차입금	162,137,792	162,871,585
유동성사채	99,921,638	449,870,415
합계	301,244,150	1,699,232,421

나. 장기금융부채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장기차입금	451,075,508	677,932,272
사채	1,396,286,603	1,096,691,053
합계	1,847,362,111	1,774,623,325

다. 단기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 원

계정과목	내역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	전기
외화단기차입금	Import Loan	SMBC	0.65%	39,184,720	-
외화단기차입금	Usance L/C	산업은행 외	-	-	672,452,717
원화단기차입금	기업어음	KTB투자증권 외	-	-	395,000,000
원화단기차입금	일반차입금	BNP	-	-	10,000,000
원화단기차입금	일반차입금	HSBC	-	-	9,037,704
합계				39,184,720	1,086,490,421

라. 장기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 원

계정과목	내역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	전기
원화장기차입금	에너지합리화	한국산업은행	1.75%	2,302,400	3,725,000
원화장기차입금	환경개선자금	한국산업은행	1.98%	727,100	1,398,300
원화장기차입금	시설자금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외	3.53%	299,360,000	599,232,000
원화장기차입금	시설자금차입금	신한은행	3.46%	20,000,000	30,000,000
원화장기차입금	시설자금차입금	외환은행 외	3.34%	194,496,994	194,401,183
원화장기차입금	시설자금차입금	한국산업은행 외	3.74%	80,931,310	-
외화장기차입금	선박건조대금	수협은행	5.40%	11,879,496	12,047,374
외화장기차입금	선박건조대금	HIHD Co., Ltd.	2.25%	3,516,000	-
소계				613,213,300	840,803,857
차감: 유동성대체				(162,137,792)	(162,871,585)
합계				451,075,508	677,932,272

마. 사채의 내역

단위: 천 원

종류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당기	전기
제 105회 무보증사채	2010-06-28	2015-06-28	-	-	199,916,597
제 108회 무보증사채	2012-01-25	2015-01-25	-	-	149,984,675
제 109회 무보증사채	2012-03-27	2015-03-27	-	-	99,969,143
제 110회 무보증사채	2012-07-20	2017-07-20	3.52%	299,631,466	299,398,708
제 111-1회 무보증사채	2012-10-23	2016-10-23	3.24%	99,921,638	99,827,605
제 111-2회 무보증사채	2012-10-23	2019-10-23	3.52%	99,799,969	99,747,787
제 112-1회 무보증사채	2014-01-27	2018-01-27	3.35%	149,639,171	149,465,973
제 112-2회 무보증사채	2014-01-27	2019-01-27	3.59%	49,845,157	49,794,938
제 113회 무보증사채	2014-06-25	2018-06-25	3.01%	99,744,750	99,642,650
제 114-1회 무보증사채	2014-11-21	2017-11-21	2.36%	79,789,869	79,680,236
제 114-2회 무보증사채	2014-11-21	2019-11-21	2.59%	159,510,260	159,385,220
제 114-3회 무보증사채	2014-11-21	2021-11-21	2.94%	59,784,380	59,747,936
제 115-1회 무보증사채	2015-03-27	2018-03-27	1.98%	69,742,300	-
제 115-2회 무보증사채	2015-03-27	2020-03-27	2.20%	189,321,870	-
제 115-3회 무보증사채	2015-03-27	2022-03-27	2.53%	139,477,411	-
소계				1,496,208,241	1,546,561,468
차감: 유동성대체				(99,921,638)	(449,870,415)
합계				1,396,286,603	1,096,691,05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8. 순확정급여부채

가.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93,262,357	152,960,99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79,581,648)	(141,319,193)
국민연금전환금	(418,905)	(462,654)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13,261,804	11,179,150

나.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52,960,997	126,469,141
당기근무원가	20,384,898	18,499,428
이자비용	4,479,878	5,187,191
재측정요소:	22,640,957	14,664,393
1.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9,730,677
2.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18,063,574	9,276,789
3.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4,577,383	(4,343,073)
급여의 지급	(11,861,308)	(6,876,575)
전입전출효과	4,656,935	(4,982,581)
보고기간말 금액	193,262,357	152,960,997

다.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41,319,193	136,719,545
이자수익	3,893,988	4,313,244
재측정요소:		
1.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1,312,092)	(1,056,972)
기여금:		
1. 사용자	41,600,000	10,000,000
제도에서의 지급:		
1. 급여의 지급	(5,919,441)	(8,656,624)
보고기간말 금액	179,581,648	141,319,193

라. 사외적립자산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공시가격	합계	구성비 (%)	공시가격	합계	구성비 (%)
현금및현금성자산	179,581,648	179,581,648	100%	141,319,193	141,319,193	100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보고기간 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사외적립자산에 불입될 예상금액은 28,751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구분	당기	전기
기말할인율	2.66%	3.08%
임금상승률	2.81%~4.74%	2.53%~4.42%

바.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단위: 천 원

구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가정의 변동	가정의 증가	가정의 감소
할인율	1%	10.08% 감소	12.32% 증가
임금상승률	1%	11.97% 증가	10.01% 감소

할인률인 우량채 수익률의 하락은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의 가치를 일부 증가시켜 상쇄효과가 있으나, 확정급여부채의 증가를 통해 가장 유의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민감도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사. 장래 예상 퇴직급여 지급액

단위: 천 원

구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금액	8,306,658	14,432,070	33,070,692	750,076,5401	7,556,574,82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19. 총당부채,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사항

19.1 총당부채

가.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총당부채의 변동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당기말
환경복구총당부채	5,773,356	-	1,045,755	4,727,601
탄소배출부채	-	4,104,690	-	4,104,690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전기말
환경복구총당부채	9,953,707	-	4,180,351	5,773,356

나. 연결회사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총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무상할당배출권	2,160	2,108	2,066	6,334

배출권의 장부가액은 "0"원이며,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은 없습니다.

19.2 우발채무

가. 연결회사의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내역

구분	소송사건내역	소송금액	소송결과 및 예상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LPG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23.7억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 소송결과 예측불가
	한국셀석유 토양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	148억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 소송결과 예측불가
회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LPG 가격 담합 과징금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1)	263억원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과징금 263억원 기납부)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1)	97억원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과징금 97억원 기납부)
	한국석유공사 환급금거부처분 취소소송	31억원	- 수원지방법원 계류 중

(*1) 전기 이전에 손실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19.3 약정사항

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외환은행 등과 40,000백만원(전기말: 50,000백만원)을 한도로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신한은행과 50,000백만원(전기말: 50,000백만원)의 할인어음 약정 및 우리은행과 50,000백만원의 협력기업상호지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나.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외환은행 등과 4,325백만원(전기말: 5,335백만원)의 수입신용장 개설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241백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하나은행과 400,000백만원, 신한캐피탈과 170,000백만원을 한도로 팩토링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신한캐피탈에 대해 73,088백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포페이팅 약정에 의하여 미즈호은행에 26,370백만원의 수출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

라.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롯데케미칼(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자금보증약정 286,000백만원을 보증 받고 있습니다.

마. 연결회사는 선박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선사와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 연결회사는 현대글로벌(주)과 일정수준 이상의 선박운행 이행보증계약(총 계약금액 707,370 천USD 중 미이행 계약 이행보증잔액 656,271 천USD)을 체결하였습니다.

사. 연결회사는 종속회사인 현대오일터미널(주) 및 현대셀베이스오일(주)의 비지배주주 주식에 대해서 비지배주주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따르면 현대오일터미널(주)의 비지배주주는 2017년 7월부터 1년간 해당 주식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셀베이스오일(주)의 비지배주주는 2021년 8월 이후 해당 주식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원유 등에 대해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제품선도 거래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거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거래은행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가. 위험회피목적 또는 매매목적의 파생상품 내역

단위: 천 원, USD, JPY, EUR

거래목적	계약종류	계약내용	계약단위	계약잔액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차입금 변동금리 위험회피	KRW	50,000,000
	제품선도	정제마진 변동 위험회피	USD	43,471,745
매매목적	통화선도	환율 변동 위험회피	USD	12,668,514
	제품선도	환율 변동 위험회피	EUR	1,200,000
매매목적	통화선도	환율 변동 위험회피	JPY	217,600,000
	제품선도	제품가격 변동 위험회피	USD	142,400,000
			USD	262,47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나. 파생상품 자산,부채의 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파생상품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비용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평가손실	파생상품 처분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	-	-	-	551,173
	통화선도	-	-	1,395,404	317,980	-
	제품선도	-	-	26,672,646	25,789,921	-
매매목적	통화선도	729,573	230,785	-	-	-
	제품선도	477,408	3,337,287	-	-	-
합계		1,206,981	3,568,072	28,068,050	28,683,446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파생상품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비용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평가손실	파생상품 처분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	-	-	-	4,238,659
	제품선도	-	-	1,100,095	168,159	-
매매목적	통화선도	210,780	1,147,033	-	-	-
	제품선도	-	83,264	-	-	-
합계		210,780	1,230,297	1,100,095	4,406,818	

다. 당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의 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파생상품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비용		파생상품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 평가이익	당기손익인식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	-	-	-	754,746
매매목적	통화선도	42,789,111	729,573	34,063,851	230,785	-
	제품선도	3,091,720	477,408	970,330	3,337,287	-
합계		45,880,831	1,206,981	35,034,181	3,568,072	754,746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파생상품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비용		파생상품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 평가이익	당기손익인식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	-	-	-	551,173
매매목적	통화선도	68,649,158	210,780	56,997,799	1,147,033	-
	제품선도	12,535,252	-	3,764,787	83,264	-
합계		81,184,410	210,780	60,762,586	1,230,297	551,173

21. 자본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245,082,422주로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입니다.

22. 신종자본증권

(1) 당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기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5-12-11	2045-12-11	4.80%	160,000,000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5-12-11	2045-12-11	4.75%	65,000,000
소계				225,000,000
차감 : 발행비용				(72,175)
합계				224,272,85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 당기 중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160,000,000	65,000,000
만기	30년(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발행일 ~ 2020-12-11 : 연 고정금리 4.80% 이후 매 5년마다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연 2.865% +연 2.00%(Step-up 조항)	발행일 ~ 2020-12-11 : 연 고정금리 4.75% 이후 매 5년마다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 연 2.815% +연 2.00%(Step-up 조항)
이자지급조건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기타	당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중도상환 가능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의 이자지급은 재량에 따라 연기 가능하며,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636,704)	(2,653,741)
해외사업환산손익	1,187,884	(4,06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489,449)
지분법자본변동	(2,737,760)	(3,327,518)
합계	(2,186,580)	(6,474,769)

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세차감전	누적법인세금액	법인세차감후
기초	(7,478,268)	1,003,499	(6,474,769)
증감	5,088,413	(800,224)	4,288,189
기말	(2,389,855)	203,275	(2,186,580)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세차감전	누적법인세금액	법인세차감후
기초	(8,244,852)	1,131,738	(7,113,114)
증감	766,584	(128,239)	638,345
기말	(7,478,268)	1,003,499	(6,474,769)

24. 이익잉여금

가. 이익잉여금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정적립금(*1)	25,058,572	25,058,572
미처분이익잉여금	2,076,293,012	1,657,211,411
합계	2,101,351,584	1,682,269,983

(*1) 연결회사는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5.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인건비	82,111,414	70,626,572
복리후생비	14,637,146	13,524,839
판매촉진비	11,880,223	11,362,903
광고선전비	21,643,495	17,767,686
용역비	37,581,184	20,782,603
지급수수료	22,092,671	23,375,331
수송비	109,068,871	106,636,892
감가상각비	19,230,315	20,902,963
무형자산상각비	2,691,092	2,036,263
지급임차료	24,225,992	22,720,984
대손상각비(환입)	171,191	(2,351,175)
기타	26,141,689	24,812,981
합계	371,475,283	332,198,84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의변동	449,492,320	845,765,094
재고자산매입액	10,764,513,304	19,253,513,179
감가상각비	275,861,681	256,270,696
무형자산상각비	3,236,774	2,310,981
인건비	206,664,376	176,154,060
기타	680,488,046	563,877,226
합계	12,380,256,501	21,097,891,236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합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7,302,836	6,291,41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435,085	-
외화환산이익	1,333,303	1,859,329
외환차익	27,608,726	47,880,866
합계	36,679,950	56,031,606
금융비용:		
이자비용	80,513,767	111,092,342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75,175
외화환산손실	1,198,769	2,180,810
외환차손	55,965,799	80,332,895
합계	137,678,335	193,681,222

28.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영업외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45,880,831	81,184,410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1,206,981	210,780
외화환산이익	2,547,597	5,115,970
외환차익	142,718,083	152,248,036
유형자산처분이익	702,274	14,284,960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	340,000
잡이익	94,241,935	12,071,090
합계	287,297,701	265,455,246
기타영업외비용:		
파생상품거래손실	754,746	551,173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35,034,181	60,762,586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3,568,072	1,230,297
외화환산손실	1,988,778	4,438,841
외환차손	162,043,100	188,162,767
유형자산처분손실	10,822,478	14,378,809
무형자산처분손실	1,121,801	20,240
무형자산손상차손	-	98,599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50,09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55,318	-
기타의대손상각비	300,000	343,822
기부금	4,993,723	8,807,426
잡손실	2,938,879	2,497,042
합계	223,721,076	281,341,69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9. 법인세비용

가.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단위: 천 원

내역	당기	전기
당기 법인세 부담액	101,699,837	16,001,779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8,761,152)	(17,321,448)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35,353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2,498,294	9,967,595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4,758,402	5,280,660
법인세비용	120,195,381	14,363,939

나. 유효법인세율의 조정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71,424,079	18,517,283
자국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142,764,054	4,131,136
비과세수익	(18,327,082)	(731,285)
비공제비용	1,887,113	2,446,514
세액공제	(6,528,730)	(3,861,575)
이연법인세미인식효과	-	12,647,408
기타	400,026	(268,259)
합계	120,195,381	14,363,939

다.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계정과목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26,726,668	20,900,516	47,627,184	11,525,779
건설중인자산	30,923,818	1,811,018	32,734,836	7,921,830
유발채무	500,000	-	500,000	121,000
대손금	9,870,385	(623,033)	9,247,352	2,237,859
유가증권손상	645,711	(645,711)	-	-
미수수익	(421,497)	44,615	(376,882)	(91,205)
총당부채	34,600,680	(1,236,421)	33,364,259	8,074,151
재고자산평가손실	9,878,028	(5,840,913)	4,037,115	976,982
유형자산처분손익	1,527,234	(120,414)	1,406,820	340,450
잡손실	99,770	(99,770)	-	-
퇴직급여총당부채	52,861,458	17,660,445	70,521,903	17,066,301
퇴직연금운용자산	(131,764,438)	(35,220,468)	(166,984,906)	(40,410,347)
파생상품평가손익	4,321,923	230,777	4,552,700	1,101,753
판매장려금	918,104	245,960	1,164,064	281,703
자산재평가	(407,684,452)	13,813,881	(393,870,571)	(95,316,678)
압축기장충당금	(91,858,874)	-	(91,858,874)	(22,229,847)
보험수리적손익	88,163,039	22,559,388	110,722,427	26,860,759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258,243	258,243	62,495
미지급비용	4,298,063	1,368,848	5,666,911	1,371,392
국고보조금	4,423,033	(899,600)	3,523,433	852,671
탄소배출총당부채	-	4,104,690	4,104,690	993,335
기타	(154,396,082)	14,577,754	(139,818,328)	(611,368)
이월세액공제	-	-	-	796,758
합계	(516,367,429)	52,889,805	(463,477,624)	(78,074,227)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 전기

단위: 천 원

계정과목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18,332,458	8,394,210	26,726,668	6,467,854
건설중인자산	523,621	30,400,197	30,923,818	7,483,564
우발채무	500,000	-	500,000	121,000
대손금	9,340,849	529,536	9,870,385	2,388,633
금융자산손상	436,145	(436,145)	-	-
유가증권손상	-	645,711	645,711	156,262
미수수익	(435,505)	14,008	(421,497)	(102,002)
충당부채	49,148,501	(14,547,821)	34,600,680	8,373,365
재고자산평가손실	4,965,527	4,912,501	9,878,028	2,390,483
유형자산처분손익	1,651,591	(124,357)	1,527,234	369,591
잡손실	-	99,770	99,770	24,144
퇴직급여충당부채	39,278,226	13,583,232	52,861,458	12,792,473
퇴직연금운용자산	(113,126,539)	(18,637,899)	(131,764,438)	(31,886,994)
파생상품평가손익	4,466,780	(144,857)	4,321,923	1,045,905
판매장려금	1,013,406	(95,302)	918,104	222,181
자산재평가	(439,220,591)	31,536,139	(407,684,452)	(98,659,637)
압축기장충당금	(97,798,225)	5,939,351	(91,858,874)	(22,229,847)
보험수리적손익	66,471,513	21,691,526	88,163,039	21,335,455
미지급비용	4,841,730	(543,667)	4,298,063	1,040,131
국고보조금	-	4,423,033	4,423,033	1,070,374
기타	21,444,848	(175,840,930)	(154,396,082)	(35,072)
이월세액공제	-	-	-	23,295,052
합계	(428,165,665)	(88,201,764)	(516,367,429)	(64,337,085)

라. 자본에 직접 부가되거나 차감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파생상품평가손실	409,663	1,025,755
유가증권평가손실	-	156,262
보험수리적손실	26,866,212	21,335,455
합계	27,275,875	22,517,472

30. 주당순이익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437,594,630	(5,321,83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245,082,422	245,082,422
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1,785	(22)

연결회사는 당기와 전기 중 회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보통주 청구가능증권)가 없으므로 기본주당순이익과 회석주당순이익이 일치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3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가. 당기와 전기 중의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조정:		
퇴직급여	20,970,788	19,373,375
감가상각비	275,861,681	256,270,696
무형자산상각비	3,236,774	2,310,981
대손상각비(환입)	171,191	(2,351,175)
기타의대손상각비	300,000	3,822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50,090
이자비용	80,513,767	111,092,342
외화환산손실	3,187,547	6,619,6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35,034,181	60,762,58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3,568,072	1,230,297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5,775,836)	5,106,518
유형자산처분손실	10,822,478	14,378,809
무형자산처분손실	1,121,801	20,240
무형자산손상차손	-	98,599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75,175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155,318	-
법인세비용	120,195,381	14,363,939
이자수익	(7,302,836)	(6,291,411)
외화환산이익	(3,880,900)	(6,975,29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45,880,831)	(81,184,41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206,981)	(210,78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435,085)	-
유형자산처분이익	(702,274)	(14,284,960)
지분법손실(이익)	20,519,740	54,127,359
복구충당부채환입	(1,045,755)	(1,987,612)
소계	509,428,221	432,598,832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영업활동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매출채권	339,078,020	414,541,525
기타채권	86,801,136	32,494,104
재고자산	455,483,277	881,646,426
기타유동자산	(12,142,997)	(52,521,131)
기타비유동자산	(77,391)	49,213
매입채무	(370,361,769)	(999,076,188)
기타채무	133,838,151	(167,582,556)
기타유동부채	24,980,142	25,546,189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8,000)	(1,497,936)
확정급여부채	(42,841,183)	(13,119,425)
장기충당부채	4,104,690	(2,489,608)
이연수익	(150,667)	(10,063,389)
기타비유동부채	(54,120)	-
소계	618,489,289	107,927,224

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 거래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195,229,448	641,003,675
유형자산 취득금액의 미지급	3,981,427	3,012,519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 지배 · 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지배기업은 현대중공업(주)(지분율 91.13%)이며 최상위 지배자와 일치합니다.

나.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	당기말	전기말	비고
공동기업	현대코스모(주)	현대코스모(주)	
관계기업(*)	-	현대자원개발(주)	지배회사의 종속기업
기타특수관계자	현대중공업의 종속회사 등	현대중공업의 종속회사 등	

(*) 당기 중 현대중합상사(주)에 매각하였습니다.

다.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1) 당기

단위: 천 원

특수관계	회사명	매출	매입	유형자산취득	기타매출(*1)	기타매입
지배기업	현대중공업(주)	91,303,263	-	75,909,404	547	4,395,312
공동기업	현대코스모(주)	1,193,371,668	887,870,946	-	55,257	11,643
	현대중합상사(주)(*2)	191,224,001	165,557	-	-	1,363
	(주)현대미포조선	11,735,537	-	-	-	-
	현대삼호중공업(주)	29,513,988	-	-	-	60,481
기타특수관계자	(주)힘스	42,700,548	-	-	-	-
	HYUNDAI CORP. SINGAPORE Pte. Ltd.(*2)	114,524,510	-	-	-	128,562
	기타	3,711,285	-	-	-	8,093,689
합계		1,678,084,800	888,036,503	75,909,404	55,804	12,691,050

(*1) 상기 거래 외에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인 현대자원개발(주) 보유지분 전체를 87백만원에 관계기업인 현대중합상사(주)에 매각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지배회사 등이 보유한 현대중합상사(주)의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현대중합상사(주) 등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거래금액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입니다.

(2) 전기

단위: 천 원

특수관계	회사명	매출	매입	유형자산처분	유형자산취득	기타매출	기타매입
지배기업	현대중공업(주)	131,705,197	-	-	60,194,183	-	4,010,504
공동기업	현대코스모(주)	1,844,524,802	1,462,766,930	16,259,039	-	109,276	1,940
	현대중합상사(주)	170,171,977	19,274,510	-	-	308,665	-
	(주)현대미포조선	18,085,043	-	-	4,845,640	-	-
	현대삼호중공업(주)	22,426,348	-	-	-	-	60,154
	현대상선(주)*	32,899,995	-	-	-	700,000	14,520,720
기타특수관계자	(주)힘스	51,577,986	-	-	-	-	-
	HYUNDAI CORP. SINGAPORE Pte. Ltd.	458,646,124	39,974,039	-	-	-	-
	현대아산(주)*	3,247,465	-	-	-	-	24,233
	기타*	2,130,933	-	-	27,886	-	6,705,812
합계		2,735,415,870	1,522,015,479	16,259,039	65,067,709	1,117,941	25,323,363

(*) 전기 중 지배회사 등이 보유한 현대상선(주)의 소유지분율이 하락하여 현대상선(주) 등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거래금액은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된 시점까지의 거래금액입니다.

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 채무의 주요 내역

(1) 당기

단위: 천 원

구분	회사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지배기업	현대중공업(주)	9,026,398	-	-	13,070,691
공동기업	현대코스모(주)	92,015,676	14,639	28,824,095	1,067
	(주)현대미포조선	1,175,407	-	-	176,612
기타특수관계자	현대삼호중공업(주)	3,213,636	55,049	-	268
	(주)힘스	2,227,411	-	-	-
	기타	198,506	-	-	19,433
합계		107,857,034	69,688	28,824,095	13,268,07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52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5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2) 전기

단위: 천 원

구분	회사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지배기업	현대중공업(주)	14,362,404	-	-	7,293,898
공동기업	현대코스모(주)	13,275,596	9,757	79,499,498	-
	현대종합상사(주)	15,020,813	2,116,580	-	-
기타특수관계자	(주)현대미포조선	1,839,081	-	-	84,770
	현대삼호중공업(주)	3,049,916	55,049	-	2,042
	(주)힐스	5,922,855	-	-	-
	HYUNDAI CORP. SINGAPORE Pte. Ltd.	12,351,595	-	-	39,450
	기타	44,421	-	-	-
합계		65,866,681	2,181,386	79,499,498	7,420,160

마.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천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유상감자	
		당기	전기
관계기업	현대자원개발(주)	7,125,000	-

연결회사는 당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인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단기운용자금을 MMT 등에 투자(당기말과 전기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은 없음)하고 있으며, 당기 중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MMT 등의 일평균잔액은 48,216백만원(전기: 9,068백만원)입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하이투자증권에 적립된 사외적립자산은 6,575백만원(전기말: 7,003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가 당기 중 발행한 사채 중 연결회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인 하이투자증권과의인수계약체결 금액은 700억원(전기: 1,100억원)입니다.

바.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당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 제공한 지급보증

단위: USD

구분	회사명	보증처	지급보증금액	보증기간	비고
공동기업	현대코스모(주)	미즈호은행	30,000,000	2012-10-26 ~ 2019-9-30	차입금지급보증

사.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임금(단기급여)	1,021,343	1,239,743
퇴직급여	125,785	220,575
합계	1,147,128	1,460,318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운영·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3. 보고기간 후 사건

(1) 연결회사는 2016년 2월 17일 현대오씨아이카본(주)를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이중 연결회사는 발행 주식의 51%를 취득하였으며, 잔여 지분은 OCI 주식회사가 취득할 계획입니다. 현대오씨아이카본(주)는 카본블랙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2) 연결회사는 2016년 2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관계기업인 현대코스모(주)에 대한 유상증자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계획에 따르면, 현대코스모(주)의 유상증자금액은 500억원으로 이중 연결회사는 250억원을 납입할 계획이며, 잔여 금액은 Cosmo Oil Co., Ltd.가 납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Overseas

싱가포르법인
Hyundai Oil Singapore Pte. Ltd.
7 Temasek Boulevard #29-01,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Tel: +65-6332-1400

상해법인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Room 2305, North Tower, #528, South Pudong Road Shanghai 200120, China
Tel: +86-21-6881-5058

중동지사
Hyundai Oilbank Middle East Branch
2905 Indigo Icon Bldg, JLT, Dubai, UAE (P.O. BOX 25321)
Tel: +971-4-454-8708

베트남지사
Hyundai Oilbank Vietnam Branch
Suite 1908 Keangnam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Commune,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6252-5511

런던지사
Hyundai Oilbank Co., Ltd. London Branch
2nd Floor The Triangle, 5-17 Hammersmith Grove, London, W6 0LG, UK
Tel: +44-(0)20-8600-7154

Domestic

본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Tel: 041-660-5114

수도권지원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 B/D 20층
Tel: 02-2004-3856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 B/D 20층
Tel: 02-2004-387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1 네오타워빌딩 15층
Tel: 031-837-9155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16층
Tel: 031-221-5189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구월동, 한국씨티은행)
Tel: 032-566-5188

영동지사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41
현대자동차빌딩 2층
Tel: 033-655-6531

영서지사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대한지적공사 3층
Tel: 033-744-4585

충청호남지원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75 (둔산동)
Tel: 042-480-2248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75 (둔산동)
현대해상 빌딩 5층
Tel: 042-480-2128

충남지사
충청남도 서산시 안건로 252 (동문동)
대신증권 빌딩 4층
Tel: 041-664-8533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37 (분평동)
BYC 빌딩 6층
Tel: 043-276-4367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72 (치평동)
현대해상 빌딩 8층
Tel: 062-602-5145

전남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9 (연향동)
LG 빌딩 7층
Tel: 061-725-5871 ~ 2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 (인후동 2가) 타이어뱅크 빌딩
Tel: 063-242-5151

천안모바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8 (문화동)
Tel: 070-7403-6526

목포모바일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12
Tel: 070-7403-6090

영남지원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거제동)
부산현대OB 4층
Tel: 051-590-5117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거제동)
부산현대OB 3층
Tel: 051-590-5128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달동)
대우증권빌딩 4층
Tel: 052-227-9180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6 (신월동) 대한지적공사 1층
Tel: 055-289-6722

진주모바일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73 (강남동)
알리안츠생명빌딩 6층
Tel: 055-761-5189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16층
Tel: 053-603-6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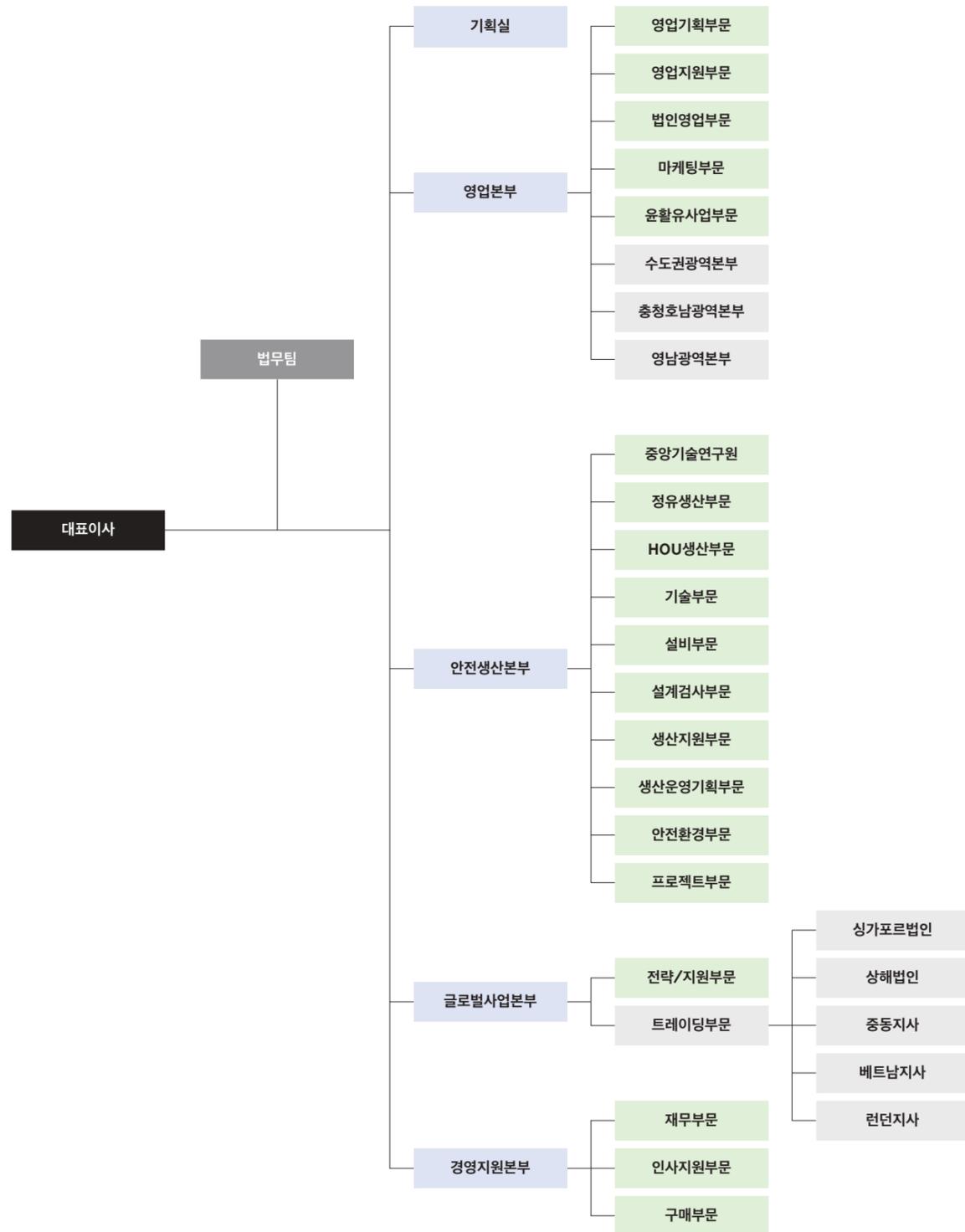
경북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대도동)
KT 포항지사 5층
Tel: 054-281-8181

안동모바일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86 (당북동)
KT 서안동지점 3층
Tel: 054-853-3598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우로 83 (연동)
현대자동차(주) 제주사옥 5층
Tel: 064-712-5189

중앙기술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0 (삼평동)
솔리드 스페이스 빌딩 6층
Tel: 031-704-5145

전사조직도



CONTACT INFORMATION

현대오일뱅크 재정팀
 김경일 팀장, 심의섭 차장, 김아영 대리, 이선민 사원
 E-mail: seonmin3626@oilbank.co.kr

